

↑ 코스피 2501.53 (+5.72)	↓ 코스닥 842.83 (-7.38)
↑ 금리 (미국 9년) 3.293 (+0.005)	↓ 환율 (원-달러) 1337.70 (-0.30)

“확장 된 韓美동맹  
미래세대에 기회 돼야”  
후속조치 구체화 당부  
02



## 재고의 벽 넘나... 반도체, 감산 따른 업황 반등 '청신호'

삼성·SK, DS부문 최악 실적에도  
2분기부터 재고 정상회복 기대감  
증권가도 하반기 D램 초과공급을 ↓

업계 감산따른 공급과잉 해소 예상  
최첨단 양산 준비, 투자재개 움직임

반도체 업계가 저조한 실적 속에서도  
시장 반등이 임박했음에 뜻을 같이 했  
다. '업턴'을 향한 긍정적인 신호도 이어  
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  
이닉스는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  
부터 업턴 가능성이 높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2분기부터는 재고가 감소할 것이  
라고도 입을 모았다.

1분기 영업 손실은 삼성전자 DS부문  
과 SK하이닉스가 각각 4조5800억원, 3  
조4023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보다도  
적자폭이 훨씬 컸다.

그럼에도 양사가 시장 회복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이유는 공급 과잉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분기 관  
련 업계가 과다한 재고 조정을 한 탓에 다  
시 수요를 늘려야 하는 상황, 메모리 업  
계가 다함께 감산을 단행하면서 시장 분  
위기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SK증권에 따르면 트렌드포스도 지난  
달 하반기 D램 초과공급을 하향 조정  
했다. 하반기 D램 재고 하락 속도가 예상  
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마이  
크론과 SK하이닉스가 적지 않은 감산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도 '의미 있는' 수  
준 감산을 약속하기도 했다.

인텔이 본격적으로 양산할 차세대 CP  
U에도 반도체 업계 기대가 크다. 2분기  
부터는 새로운 D램 규격인 DDR5를 지  
원하는 사파이어레이크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차세대

CPU인 메테오레이크 양산까지 준비됐  
다고 밝힌 것.

최악의 실적을 발표한 인텔도 2분기부  
터 시장이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  
지 않았다.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실  
적을 발표하면서 팻 겔싱어 CEO 등 경  
영진들은 1분기 큰폭의 재고 조정으로 2  
분기부터는 차차 재고가 정상 수준을 회  
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매출이 117억달  
러에 순이익도 2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  
지만, 시장 전망치보다는 훨씬 양호하  
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가도 큰폭으로 올  
랐다.

메모리 주요 수요처인 서버 업계도 경  
기 침체에 따른 역성장 전망을 완전히 뒤  
집고 크게 개선된 실적을 발표했다. 그동  
안 줄라뻤던 허리띠를 풀고 투자를 재개  
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얘기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업계 1위인 아  
마존 AWS 사업부는 15.8%, 2위인 마이  
크로소프트 지능형클라우드 부문이  
16.3% 늘었다. 구글은 클라우드 부문에  
서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하며 사업 가능  
성을 확인했다.

특히 서버 업계는 인공지능(AI) 서비  
스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는 분위기다.  
챗GPT에 투자하고 검색엔진에 도입하  
는 등 AI 역량을 확대한 MS와 이를 따라  
가려는 구글이 이익률을 계속 늘려가고  
주가도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주춤하  
는 평가를 받은 아마존은 이익도 주가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컨  
퍼런스콜을 통해 하반기부터 AI서버를  
위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H  
BM3를 엔비디아 등에 공급 중, 삼성전  
자도 다양한 고성능 메모리를 준비하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컨테이너 만큼 쌓여가는 무역적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14개월째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졌  
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  
여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스1

## '모바일 뱅크런'에 또 무너진 美 은행

퍼스트리퍼블릭銀 매각 절차  
SVB 등 파산 이어 올 4번째

최근 한달동안 고객 예금이 130조  
원 이상 빠져나간 미국의 퍼스트리퍼  
블릭 은행이 붕괴 수순을 밟게 됐다.  
3월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은행(SV  
B), 시그니처은행 파산 이후 4번째다.

이들 은행의 파산은 사회관계망서  
비스(SNS)를 통해 공포심리가 확대  
되며 모바일 뱅크런(대규모 인출사  
태)이 발생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다시 불거진 은행발 금융불안 사태를  
두고, 차액결제 담보비율 상향 등 금  
융 사각지대를 하루빨리 메꿔야 한다  
는 지적이 나온다.

◆ 또 다른 변수 SNS→모바일 뱅크  
런

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는 퍼스트리퍼  
블릭은행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  
단해 지난달 30일을 임찰마감일로 정  
하고 매각 인수자를 물색했다. FDIC  
가 입찰의사를 물은 곳은 JP모건, 뱅  
크 오브 아메리카, PNC파이낸셜그룹,  
US뱅크 등으로 JP모건과 PNC가  
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다만 입찰을  
통한 매각이 불발될 경우 FDIC는 파  
산재인을 맡아 예금과 자산을 인수  
해 관리해야 한다.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갑작스레  
파산, 매각 수순을 밟고 있는 이유는

SNS를 통한 뱅크런을 막지 못했기 때  
문이다. SNS로 위기소식이 알려진 뒤  
36시간 만에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  
과 같은 수순을 밟은 셈이다.

지난 3월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  
브아메리카 등 11개은행은 실리콘밸  
리은행 파산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 긴급  
자금 300억달러(약 40조원)를 예치했  
다. 연방준비은행(FRB)도 1000억달  
러(약 134조원)를 긴급 대여한다고 발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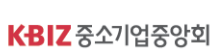
다만 이러한 노력이 전례 없는 인출  
행렬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8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민방문 성과를 환영하며 자유와 미래번영을 향한 韓美동맹 강화를 지지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등 공동의 핵심 가치를 토대로 진화하는 한미 동맹 강화는  
양국간 경제 협력 및 동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경제와 기술동맹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경제계는 한미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확장 韓美동맹, 미래세대에 기회 돼야… 후속조치 구체화를”

尹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한미동맹 ‘첨단기술 동맹’ 확장  
군사·안보협력 토대 포괄적 협력

한국형 확장억제 구체화 통해  
워싱턴 선언, 핵협의그룹 신설  
“美서 역대 최고 국민만찬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방미 중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안보를 비롯해 산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5박7일간 미국 국민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업그레이드되고 확장된 한미동맹,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달라”고 주문했다.



5박7일간 국민 방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 시간)부터 29일까지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관련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을 구축했고, 한미동맹의 70년간 역사적 성과를 함께 축하하며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을 첨단 기술 동맹으로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굳건한 군사·안보 협력을 토대로 경제안보·기술혁신, 지

역·글로벌 현안, 문화·인적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으며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핵심가치를 함께 수호하는 ‘가치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핵심 5대 분야에서도 다각적 협력 관계를 강화했으며 특히 ‘한국형 확장억제’ 구체화를 통해 미국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확장억제 강화에 방점을 둔 ‘워싱턴 선언’과 핵 관련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확대 등을 명시했다.

또, 경제안보와 관련 반도체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 및 인적교류, 미국의 대한 투자 활성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CHIPS Act·반도체법)에서 한국 기업 배려, 전기차·2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동맹의 컨트롤타워로서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차세대핵심·신기술 대화’ 신설과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설립 예정인 한국우주항공청(KASA)과 나사

(NASA) 간 협력 토대 마련 등으로 첨단 기술동맹도 심화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국민 간 유대 및 인적·문화교류 심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기로 하고, 한미 공동 재정기여(6000만달러·약 804억원)를 바탕으로 이공계 및 인문·사회 분야에서 각 2023명의 청년들이 교류하는 특별교류 프로그램 등도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5차례 이상 만나며 깊은 신뢰감과 유대감을 쌓은 것도 가장 큰 성과물로 꼽으면서 “미 측으로부터 역대 최고의 국민만찬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양 정상 간 각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우리 정상으로는 역대 7번째이자, 10년 만에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하버드대에서의 정책연설을 통해 강력한 연대 및 자유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질서, 미래세대와 소통으로 한미동맹의 지지 저변을 확대했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최태원 ‘그린 리더십’… 한미 경제외교 지원

美 상의 투자신고식 국내투자자  
SK가 이끌어낸 투자건들 포함돼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서  
그룹 계열사 신규 MOU 3건 포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미정상회담 기간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해 수소, 플라스틱 재활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그린비즈니스에서 한미간 경제외교를 지원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신고식에는 SK가 글로벌 투자 및 협력을 통해 이끌어낸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 건들이 포함됐다. 또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에는 SK그룹 계열사의 신규 MOU가 3건 포함됐다. 이는 그간 최 SK회장을 필두로 진행한 그린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수소, 원전 등으로 확장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양국은 그린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략산업 공급망 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최회장은 지난해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화상면담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그린 등 핵심 성장 동력 분야에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히며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 모델을 상기 시켰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 중 처음으로 SK실트론 CSS공장을 방문하면서 양국의 협력에 힘을 실었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진 투자 신고 중 글로벌 수소에너지 선도기업인 플러그파워(Plug Power)의 국내 투자는 SK와 오랜 기간 이어온 협력 하에 이루어진 성과였다. 플러그파워는 수소의 생산·저장을 아우르는 생태계 구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앞서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대표이사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을 목표로 수소 연료전지 및 전해조 설비 기술력에 있어 선도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업이다. SK(주)와 SK E&S는 2021년 플러그파워에 16억 달러(약 1조 8천억 원)를 투자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SK E&S와 플러그파워가 합작법인 ‘SK 플러그 하이버스(SK Plug Hyverse)’를 통해 국내 수소산업에 총 1조 원을 투입한다. 합작법인 지분율에 따라 SK E&S가 5100억 원, 플러그파워가 4900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인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이하 PCT)의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설 투자 역시 SK와의 긴밀한 사업협력의 결과다. PCT는 폐플라스틱에서 오염물질, 냄새, 색을 제거한 초고순도 재생 폴리프로필렌을 뽑아내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SK지오센트릭이 작년 3월 PCT에 5500만 달러(약 680억 원)를 투자하여 지분을 확보했으며, 작년 10월에는 양사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하고 울산에 공동투자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SK 관계자는 “이번 투자신고는 SK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글로벌 선

도 기업과 긴밀하게 협업해온 것이 결실을 맺어 국내 투자 유치 및 한미 경제외교까지 기여한 것”이라며, “이는 최 회장이 경영 화두로 제시한 ‘글로벌 스토리’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의 방미 기간에 맞춰 SK(주), SK이노베이션, SK E&S, SK머티리얼즈 등 그룹 계열사도 신규 MOU를 체결하며 새로운 글로벌 협력의 물꼬를 마련했다.

SK(주), SK이노베이션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설계기업 테라파워와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상호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SK E&S는 GE, 플러그파워, HD한국조선해양 등 한미 주요 기업들과 ‘블루수소 생산·유통·활용을 위한 전주기 사업 투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계 최대 블루수소 생태계 조성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블루수소 생태계 구축에 6조 7000억원의 대규모 직접투자가 이뤄져 10만5000명의 일자리와 59조원 규모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 무역수지 -26.2억 弗… 14개월 연속 적자

산업부, 4월 수출액 496.2억 弗  
반도체 수출 41%, 디스플레이 29% ↓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이 이어지며 지난달 수출이 7개월째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1월 이후 적자 규모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4.2% 감소한 496억2000만달러, 수입은 13.3% 감소한 522억3000만달러, 무역수지는 2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반도체 업황 부진, 조업일수 감소(-1.0일)에 작년 4월 수출이 역대 4월 중 최고 실적(578억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지효과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

품목별로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41.0% 급감했고, 디스플레이(-29.3%) 등 IT품목과 석유제품(-27.3%), 석유화학(-23.8%), 철강(-10.7%) 등의 감소폭이 컸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가격

하락이 지속됐고,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석유화학단가하락, 철강가격하락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자동차(+40.3%), 선박(+59.2%), 일반기계(+8.1%) 수출은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자동차 수출 급증과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일반기계 등의 수출이 증가한 유럽연합(+9.9%)과 중동(+30.7%)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26.6%), 아세안(-26.3%) 등에 대한 수출은 줄었다.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수입수요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대 중국, 대 아세안 수출 감소에 주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작년 4월의 수출 호조(96억달러, +27.1%)에 따른 역기지효과로 소폭 감소(-4.4%)했다.

수입은 원유(-30.1%), 가스(-15.5%) 등 에너지 수입이 25.8% 감소함에 따른 영향으로 줄었다. 에너지 외에도 반도체와 철강 등 원부재재 수입도 감소세를 이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반도체 가격 ‘바닥’ 분석에 기대감 상승

» 1면 ‘재고의 벽 넘나…’서 계속

반도체 가격도 바닥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D램익스체인지는 4월 DDR48GbD램 가격이 전달보다 20%나 떨어진 1.45달러라고 밝혔다. 2분기 전체적으로도 1분기보다 15~20%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다만 매체에 따르면 마이크

론이 가격 인하를 중단할만큼 재고 상황이 개선됐다.

업권이 ‘슈퍼사이클’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스마트폰과 PC 등 전방 수요가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하반기 중국 브랜드 등이 신형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등으로 수요 증가 기대가 있긴 하지만, 경기 침체와 전쟁 등 악재가 여전한 탓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김재용 기자 juk@



# 35개국 112개 글로벌 거점 구축 매출 3배·영업익 6배 '퀀텀점프'

## CJ대한통운-CJGLS 통합 10주년

물류산업 개념 '노동→기술' 전환  
지난해 택배 취급량 17억 상자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 목표"

'매출액, 2013년 3조7000억→2022년 12조1000억원...227% 성장.'

2013년 당시 CJ그룹 품에 안긴 후관 판을 바꿔 단 CJ대한통운이 10년이 지난 후 기록한 매출 성적표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41억원에서 4118억원으로 무려 6배 성장했다.

글로벌 거점은 10년 전 17개국, 35곳에서 현재 35개국, 112곳으로 크게 늘었다. 글로벌 부문 매출은 1조705억원에서 5조612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내 1위 물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대동맥 역할을 톡톡히하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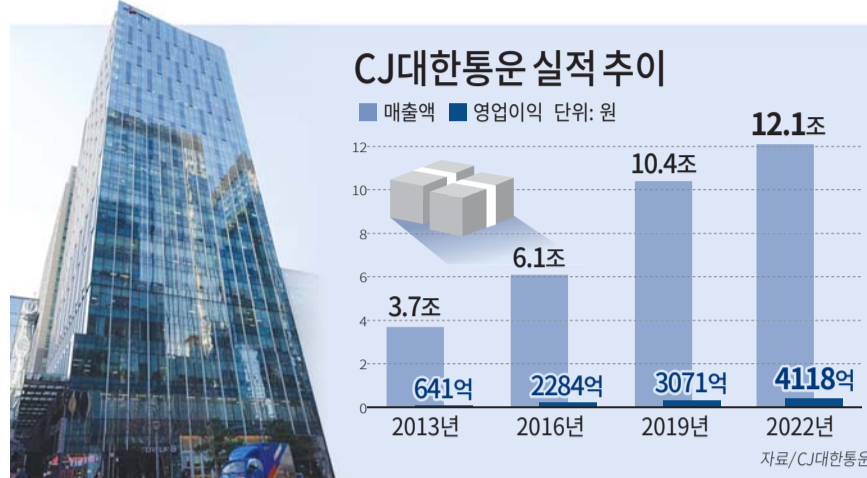
CJ대한통운은 2013년 4월 CJ그룹의 물류계열사인 CJGLS와 합병해 통합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지 꼭 10년을 맞았다고 1일 밝혔다.

대한통운은 법정관리 중이던 2008년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인수됐지만 2011년 말 CJ그룹으로 대주주가 다시 한번 바뀌게 됐고 이후 그룹내 물류계열사와 합병을 통해 재탄생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0년간 매출, 영업이익을 매년 새롭게 썼다. 2019년엔 처음으로 '매출 10조 원' 벽을 뛰어넘기도 했다.

2013년 당시 5억 상자였던 연간 택배 취급량은 지난해엔 17억 상자로 크게 늘었다. 직원수는 8400명에서 2만명으로 증가했고, 해외 법인에서 채용한 현지인 직원도 2900명에서 1만3700명으로 증가했다.

사업구조도 주력사업이었던 계약물



류(CL) 부문이 2013년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지난해 비중은 4분의 1로 줄었다. 대신 28%였던 글로벌부문 매출 비중은 42%로 늘었다.

10년 사이 주력사업은 '하역·육상운송→택배→CBE(초국경무역)·글로벌'로 진화했다.

이같이 도약한 배경에 대한통운인수 당시부터 물류를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CJ그룹의 강한 의지가 자리잡고 있었다는 게 자체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착공한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이다. 당시 업계에선 4000억원이 넘는 CJ그룹의 투자를 '무모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곤지암 메가허브 투자 이후 택배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했고, 쏟아지는 물량을 처리할 시설 투자가 늦었던 경쟁사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2~3%에 불과했던 택배부문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4.8%까지 높아졌다.

CJ그룹은 대한통운 통합 직후부터 '글로벌 공급망(SCM)'에 주목하며 글로벌 인수합병(M&A)을 통해 덩치를 키워 나갔다. 2013년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지의 우량 물류기업들을 인수했다. 그 결과 10년전 미국 매출은 987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조2628

억원으로 13배 가까이 늘었다.

10년의 도약을 통해 CJ대한통운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알려진 물류산업을 기술집약 산업으로 혁신했다. 2020년 확대 개편된 CJ대한통운 TES물류기술연구소는 로봇과 AI,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개발과 상용화의 주역이었다. 2022년 대중에 공개된 '군포 스마트 풀필먼트센터'는 AGV와 디지털트윈, 박스추천 시스템 등 첨단 무인화 기술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현장이었다.

이런 가운데 CJ대한통운은 월드 클래스 기술을 토대로 세계적인 물류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있다.

택배 통합브랜드 '오네' 기반 라스트마일 시장 지배력 강화를 비롯해 ▲화주-차주 직접연결 플랫폼 '더운반' 확대 ▲100조원 규모 초국경택배 시장 공략 ▲신성장국가 중심 글로벌 전략 등을 기반으로 초격차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육성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통합 이후 10년 동안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의 기반을 구축해왔다"면서 "2030년까지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파이 커지는 폴더블폰 시장 삼성 "차별화로 선도 자신감"

美, 中 기업 필두로 신제품 쏟아져  
삼성전자, 경쟁구도 환영 분위기  
일각선 7월말 갤럭시 언팩 예측도



(왼쪽부터)파인드N2, 파인드N2플립 /오포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독보적으로 선도하고 있던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다수의 경쟁자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경쟁사의 폴더블 제품군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오포에 이어 구글까지 폴더블폰 모델을 출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오포는 중국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서며 폴더블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 30일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오포는 '파인드N2플립'을 필두로 올해 1·4분기 중국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여기에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비보도 '비보 X 플립' '비보 X 플드'를 최근 출시하며 2·4분기 시장 점유율 높이에 나서고 있으며, 모토로라도 Z플립이 채택한 클램셀 형태의 디자인의 '레이저40울트라'를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폴더블 시장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만 탄탄한 시장이 아니다. 다음 달에는 구글의 첫 폴더블폰 모델인 '픽셀 플드'가 공개될 예정이다. 정식 출시일은 6월로 전망된다. 미국의 CNBC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10일 열리는 연례 개발자 회의 '구글 I/O'에서 첫 폴더블폰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경우는 폴더블 기술 관련 특허를 등록하며 폴더블 기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방증했다. 아직 애플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구글까지 폴더블에 대전에 참여하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의 점유율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런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구도를 삼성전자는 '환영'하는 분위기

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폴더블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갤럭시 언팩 2022' 이후 기자간담회를 가진 노태문 삼성전자MX사업부장(사장)도 "폴더블폰이 한번 스쳐 지나가는 '니치마켓'이 아닌 '메인스트림(주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노 사장은 또 "폴더블폰으로 프리미엄 시장에서 수요를 이끌어 내고 점유율을 늘리겠다"고 말할 정도로 삼성전자는 폴더블 시장 선도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결국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져 제품에 대한 '차별화'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국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8.8%포인트 증가한 30.1%로, 큰 폭으로 성장해 시장 역시 폴더블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올라갔음을 알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폴더블 시장 공략은 한층 더 거세지고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1분기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스마트폰 사업을 이끄는 MX사업부 자체의 실적은 선방했기에 하반기에 나올 폴더블 스마트폰의 성적은 그룹 차원에서도 더욱 중요해졌다. 폴더블 스마트폰 신작을 시장에 조기 등판시켜 실적 부진을 만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8월 초·중순에 열렸던 신제품 공개 행사인 '갤럭시 언팩(Samsung Galaxy Unpacked)'도 7월 말로 앞당길 것이란 소문이 퍼지는 이유다.

/허정윤 기자 zekova@



한국환경공단은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구를 위해 ESG경영을 실천합니다



**ENVIRONMENT**  
탄소중립경영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국민을 위한 환경경영

**SOCIAL**  
사회책임경영  
포용적 환경서비스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책임경영

**GOVERNANCE**  
준법윤리경영  
공정준종의 가치를 구현하는  
준법윤리경영



# “검사 지위로 제도 무력화… ‘인사검증’ 객관성 확보해야”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인터뷰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던 4월 26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회의에 열중이었다.

그들은 '정순신 전 감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과 자녀 학교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당 차원에서 구성했던 조사단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 준비에 분주했다.

강 의원은 조사단을 이끄는 단장을 맡았다. 또한 박홍근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부대표를 맡았고 민주당 대일 굴욕외교대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맡은 위원회만 해도 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로 3개나 된다.

**국격·민주주의·민생 무너진 1년  
윤 대통령 권위도 완전히 떨어져  
노동자들의 생존권 탄압해  
상대적 부자들에게 혜택 줘**

만 35세에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돼, 3선을 하고 도의회의장까지 한 강 의원은 “국회는 정부적 고민이 큰 곳이다. 국회는 지방의회보다 정부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당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함께 가야하는 곳이 국회다. 상임위에 좋은 법안을 올려도, 법안소위가 안 열리면 일정이 늦춰지고, 우선순위에에서도 밀릴 수 있다. 상대 당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관철이 안 된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안 될 때는 표결로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예를 들어 언론에선 ‘제1야당의 폭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야당이 밀어붙여 통과되는 법안은 5%도 안 된다. 대부분 여야 합의”라고 말했다.

## ◆“국격이 완전히 무너진 1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재임 중 초대 연정부지사로 협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했던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1년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내렸다.

강 의원은 “국격이 완전히 무너진 1년이었다. 대통령의 권위도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며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우크라이나 대량 살상 무기 우회 지원 의혹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가, 세 번째로는 서민의 삶이 무너진 1년이었다”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탄압하고 세금이라는 부분에서 대기업과 상대적으로 부자들에게 온갖 혜택을 주고 당장 세수가 올해 말까지 20조원 결손이 날 것이라고 하는데, 세수 결손에 따른 추경까지 해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검사라는 지위 활용해 제도 무력화”

강 의원은 정순신 전 감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과 자녀의 학교 폭력 사태를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순신 전 감사는 자녀의 학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메트로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직 검사였다.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와 전문성을 활용해서 학교폭력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것이 제일 크다”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회적 합의다. 검사 출신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검찰 권력이 공식적으로 경찰 권력의 2인자인 국가수사본부장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경찰권까지 장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1차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기능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서 옮겨와야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순신 전 감사 건도 추천과 검증을 검사 출신이 하고, 당사자도 검사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사전 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인사수석이 또 검증을 했다”며 “어떤 부분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하고 인사혁신처가 이후 또 검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순신·학교폭력, 두가지 관점보야  
현직 검사 지위로 학폭제도 무력화  
인사검증 공정성·객관성 고민 필요**

## ◆“故 정창교 선배 참 유연했다”

강 의원이 의정 활동을 펼치는 경기 안양시는 20대 국회까지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이종걸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5~6선 중진 의원들이 장기집권을 한 곳이다.

강 의원은 안양 만안에 출마를 선언하고 이종걸 전 원내대표를 경선에서 이기고 안양시장을 했던 이필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초선의원으로 입성했다.

그 후 강 의원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노하우’란 책을 개정해 발간했는데, 이 책의 원저자는 그가 조언을 구하던 선배인 고(故) 정창교 전 서울특별시 정책자문특별보좌관이었다.

노동운동가였던 정창교 전 보좌관은 민주당 중앙당 당직, 국회정책연구위원을 역임하며 전자투표(2000년), 국민경선제(2002년), 모바일투표(2007년) 등을 도입했다.

강 의원은 “소위 말하는 운동권 출신 선배다. 후배들에게 인정받는 선배였는데, 원칙을 갖고 살아갔지만 참 유연하고 탄력적이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했던 선배였다”며 “제가 야인일 때도, 도의원일 때도, 도의회의장일 때도 현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지 잘 받아 주셨고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해주셨다”고 말했다.

**대출이자감면 법안 인기 편승 아냐  
등록금이자 부담 줄이고 삶의 질 높여  
동안·만안 격차 여러 각도로 접근**

이어 “민주당에도 선배로서의 역할, 선배로서의 기강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아 한다. 후배들이 롤모델로 공적인 역할을 하는 동안, 정당인으로 있을 동안 나름대로 자문도 구하고 귀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포퓰리즘 아냐”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법안이 대중들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고 힘줘 말했다.

강 의원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사채를 100만원을 빌린 적이 있다. 실제 제가 받은 100만원 중에서 선이자를 공제했다고 하는데도, 매달 이자를 냈다. 절망적이고 분노를 삼켰다”며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대학교 등록금 만큼은 아빠로서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대학 8학기 중에서 어떤 친구는 4학기, 어떤 친구는 5학기 등록금을 대출 받아서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친구들은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를 나가고 직장을 잡았는데, 매달 원금이라 이자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결혼해서 집 전세 대출과 원금까지 갚는다고 하면 삶이 얼마나 힘들겠나. 이를 해결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부연했다.

## ◆“만안은 행정중심구, 동안은 경제중심구”

강득구 의원은 안양시 내에서 평촌신도시가 있는 동안구와 안양1번가와 안양중양시장이 있는 만안구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여러 각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만안은 행정중심구로, 동안구는 경제중심구로의 위상을 세워서 안양시청을 만안구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전제조건은 현 시청사 자리에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하고 사람들이 계속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만안구도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재개발이 아니라 만안의 중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만안구만이 특화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을 잘 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관악산, 수리산, 안양천 등 만안구의 쾌적한 자연환경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 및 서울대 관악수목원 시민 개방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문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프로필**  
강득구 의원

1963년 5월 27일 출생  
만안초·신성중·신성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행정리더십학석사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 학사

- 5·8·9대 경기도의회 의원
- 9대 경기도의회 의장
- 경기도 연정부지사
-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원 본부장
- 21대 국회의원 (교육위·운영위·인구위기특위)





1988년 존재감을 알린 대한민국



2002년 처력을 보여준 대한민국

2030 부산 엑스포로  
또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우리의 힘은 더 위대합니다

2030 부산 엑스포 개최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SK도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WAVE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ww.thewave.net](http://www.thewave.net)





# 與, 윤리위 첫 회의... 설화논란 '김재원·태영호' 징계 착수

사회적 논란으로 부정적 영향 판단  
홍준표·천하람·유승민 징계 제외  
“2차 회의서 징계수위 결정할 것”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첫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오는 8일 윤리위는 2차 회의를 앞두고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은 뒤 당일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뉴스1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새롭게 출범한 윤리위가 ‘설화’로 논란이 된 두 최고위원 징계 절차에 착수함으로써, 리스크를 털어내기 위한 셈이다.

윤리위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 뒤 ‘윤리규칙 등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된 두 사안에 대해, 동 사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돼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했다. 보도자료에서 밝힌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윤리위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 위반’이었다.

윤리위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와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 낮은 기념일’ 등 발언을 한 게 윤리위 규정 및 윤리규칙 위반 사유

로 판단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지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Junk(쓰레기)·Money(돈)·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비판 등을 문제로 판단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징계를 개시하기로 한 윤리위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이

라고 말했다. 이어 “2차 회의에서 당사자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2차 회의는 오는 8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와 관련 윤리위 내부에서는 ‘징계를 개시해야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현 당 대표 역시 윤리위에 “객관성·공정성 원칙에 따라 국민의힘을 국민이 더욱 사랑하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당헌·당규에 따라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그동안 저를 뽑아준 당원, 우리 당 지지자, 국민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동료 최고위원, 당직자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쓰레기, 돈 버리, 성 비위 민주당’이라는 비판에 대해 지난달 24일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업무상 해프닝”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해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과 관련,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에 징계 요청을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4·3사건 발언 논란과 관련해 태 최고위원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릴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징계 결과가 2차 회의 때 나올지는 미정이다. 김 최고위원이 5·18 관련 설화로 논란이 된 만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 징계 수위가 정해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황정근

위원장은 “2차 회의를 진행해 봐야 한다”고 했다. 2차 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지 질문에도 “그렇게 예상된다”고 답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가 있다. 당 안팎에서는 징계 수위에 따라 민심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 윤리위는 과거 5·18 관련 실언으로 징계받은 김순례·이종명 전 의원 사례에 대해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례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당시 유가족에게 “괴물 집단”이라는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종명 전 의원도 같은 공청회에서 ‘5·18 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며 “광주 폭동”이라는 발언으로 제명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윤리위는 징계 요구가 접수된 홍준표 대구시장,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개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윤리규칙 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7가지 항목으로 구분하는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 상정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특권노조, 노동자 이름 먹칠” vs “尹정부 노동탄압 막아내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 與野 근로자의 날 논평

국민의힘 “땀의 가치 인정받는 나라로”  
민주당 “주69시간으로 노동자 옥죄”  
정의당 “노동시간 유연화 단결 저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조합원들이 세계노동절 133주년인 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건설노조 탄압 중단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일 133주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부 노동조합 행태가 노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33주년 ‘노동절’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을 막아내겠다고 입을 모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노동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를 만들고, 또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특권노조의 행태는 노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노동자라는 이름에 오히려 먹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동자 권익’과는 전혀 무관한 불법, 폐법 파업을 주도하는가 하면, 자신들만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세습’, 비노조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땀의 가치가 인정받

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에겐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노동의 가치는 더욱 빛났다. 공동체를 지탱하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노동에 있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은 안락하지 못하다. 윤석열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노조 회계 자율점검으로 노조를 옥죄고, 주69시간 근무제로 노동자의 삶을 갉아먹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여당 최고위원은 ‘노조를 열심히 때리겠다’며 노조 해체론을 내뿜고, 극우의 첨병 전광훈 사랑제일

교회 목사는 ‘대통령실이 노동절날 민주노총을 막아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려를 표할 만큼 대한민국의 노동은 위기다. 69시간 근무제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이 과로 사회를 넘어 4.5일제로 나아가는 문을 열겠다. 노동조합에 대한 가혹한 손해배상청구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노동권의 거대한 퇴행에 직면한 오늘, 노동정치 진보정치의 시대적 소명을 다시 한번 무겁게 되새긴다”며 “백년도 훨씬 전인 1886년에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하루 8시간 노동’이 무색하게도, 주 69시간제도 거리낌 없이 추진하는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개악을 단결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김기현 “尹 대통령 방미, 북핵 대응 등 새로운 이정표 수립”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비판엔 ‘흠집내기’ 반박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1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무조건적인 흠집 내기, 트집 잡기”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워싱턴 선언,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 북핵 협력 대응,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 경제·산업 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핵을 포함해 업그레이드한 제2의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라고 평가한 김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핵 협의 그룹을 설치해 우리나라가 핵 운영 발원권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 북핵 대응에 특화된 확장 억제력을 강화했다”는 말도 했다.

김 대표는 또 “군사동맹에서 더 나아가 첨단 경제·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고 아울러 자유·평화·번영을 기초로 한글로 벌 가치 동맹을 완성했다”며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은 군사 동맹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 분야 관련 공급망 협력, 우주, 사이버, 인공지

능, 양자 분야까지 동맹 범위를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충분하다. 날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공급망 문제에서 안정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했다”며 “방미 기간 50건에 해당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무려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도 있었다”고도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윤 대통령 방미 행보에 대한 비판을 겨냥해 “자신들의 집권 시절 굴종 외교는 까맣게 잊고 세 살 짜리 먹기인 줄 알면서도 오로지 비난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은 갈수록 그 언행이 금도를 넘고 있어 참으로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최영훈 기자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현 내정

박광온 원내대표, 4기 인선 발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원내 수석 부대표, 원내 대변인, 비서실장 등 민주당 4기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재선의 송기현 의원(사진)을 원내 수석 부대표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원내 대변인엔 김한규 의원과 이소영 의원이 합류했다. 특히 박광온 원내대표는 경제 담당 대변인으로 홍성국 의원을 내정했다. 원내 대변인은 세 명 모두 초선의원으로 구성했다.

초선의 민병덕 의원은 비서실장으로 박광온 원내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예정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임 원내대표단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과있는 국회 운영과 민생 우선 정치 복원을 위한 최적의 인선을 위해 주말 동안 폭넓게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송기현 의원을 소개하면서 “정책위 수석부장과 법사위 간사 등을 역임하며 원칙적이면서 유연한 분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라며 “중대 재해방지법 등 민주당의 많은 개혁 법안을 뚝심있게 처리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원지 | 빠니보틀 | 각류브

진정한 마라맛을 찾아서

# 마라로이드





# ‘가정의달’ 카드·보험사, 해외여행객 핀셋 마케팅 본격화

5월 해외여행 역대급 기록 예상

삼성·KB·NH농협 등 카드업계  
사용금액 따라 할인·포인트 혜택

삼성화재, 결항 추가비 특약 등  
보험업계 해외여행자보험 선배



삼성 ID 노마드(왼쪽), KB국민 위시 올(A II)카드 플레이트 이미지. /각사

5월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이 늘었다.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신용카드를 활용한 환전혜택은 물론 여행자보험 가입을 알뜰하게 챙기려는 수요도 많다. 카드사와 보험사도 ‘가정의달’ 특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월은 운수업 부문 카드승인실적이 통상 올라간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지난 2019년 5월 운수업 카드승인금

액은 1조4900억원에 달했다. 직전 달 대비 400억원 증가한 수치다. 2018년 5월 또한 운수업 부문 카드승인금액이 한 달 사이 2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 ◆카드사, 포인트 적립 등 혜택

업계에서는 5월에 해외여행객이 ‘역대급’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월 운수업 카드승인금액이 1조4700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1조3900억원)과 2019년(1조

3500억원) 2월에 비교하면 각각 800억원, 1200억원 증가했다.

카드업계는 환전과 포인트적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과거 해외여행 특화카드가 공항라운지, 발렛파크 등 편의성 제공에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실용성을 강조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카드는 올해 ‘삼성 ID 노마드(NOMAD) 카드’를 새롭게 선보였다. 연 1회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등에서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2만원을 할인하는 기프트카드를 발행했다. 해외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최대 2%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KB국민 위시 올(A II)카드’를 출시했다. 해외가맹점에서 결제시 사용금액의 2%를 월 최대 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국내 사용금액 1%는 무제한 적립이 가능하다.

NH농협카드의 ‘zgm.휴가중’은 호

텔스닷컴코리아와의 제휴를 통해 숙소 예약때 혜택을 준다. 전월 실적과 할인한도 제한없이 숙소금액의 20%를 월 4회 할인한다. ‘호캉스’, ‘바캉스’ 등을 즐기는 여행객이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환전에는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가 제격이다. 8개국의 통화(달러·엔화·유로화 등)를 대상으로 결제 및 현금 인출기 수수료를 면제한다. 하나머니를 사용하면 환전수수료도 100% 우대한다.

## ◆보험사도 해외여행상품 선보여

보험업계 또한 여행객 잡기에 나섰다. 지난 2월 말 기준 주요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해외여행자보험 계약건수는 22만98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만6479건)와 비교하면 1241%나 증가했다.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착 해외여행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의료비, 타인의 손해배상, 휴대폰 손해 보상, 여권을 분실 후 재발급 비용 등을 보장한다. 추가로 ‘항공기·수화물 지연 결항 추가비용 특약’을 통해 항공기 지연 피해를 담보한다.

이 밖에도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등의 중소 손보사 또한 여행자보험을 출시했다. 해외에서 폭행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특약으로 담는 등 해외여행객을 정조준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올해 5월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카드업계와 보험업계의 경우 일상과 밀접하다 보니 가정의 달 특수에 힘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인천 제1금고’ 신한銀, ADB 연차총회 후원

3년 만에 송도서 대면으로 개최  
60여개국 5000명 관계자들 참여  
‘금융의 디지털 전환’ 홍보관 운영

신한은행이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후원은행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ADB는 1966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인 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로 회원국의 극심한 빈곤퇴치를 위해 대출, 기술 지원, 보조금 및 자본 투자 등을 제공하고 있다.

ADB 연차총회는 회원국 거버너들이 ADB의 행정, 재정 및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ADB의 최대 행사다. 이번 제56차 ADB 연차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만에 인천 송도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며, 60여개국 약 5000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14일 기획재정부와 ADB 연차총회 후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기업전시부스 운영 ▲네트워킹 허브 공용공간 조성 ▲참가자 오찬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이번 연차총회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그룹의 계열사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소재로 전시 홍보관을 운영한다.

신한은행은 자체 구축한 메타버스 플랫폼 ‘시나몬’, 음식주문 중개 플랫폼 ‘뽕겨요’를, 신한카드는 ‘페이스페이(Face Pay)’ 등을 제공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ADB 연차총회 개최지인 인천광역시 제1금고 은행으로서 참가자들이 공항, 행사장, 숙소 등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약 30대의 셔틀버스를 후원하고, 편리하게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점포 ‘뱅크드’도 배치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현대해상, 티맵 운전점수로 최대 8% 할인

### 보험 브리핑

흥국생명, 불법거래 방지역량 강화  
‘자금세탁 의심거래 신고’ 캠페인  
DBG생명, 분기기준 최대실적 달성  
유상증자 단행 등 적극적 자본 확충

현대해상이 티맵(TMAP)사용자를 위한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안전점수 70점 유지, 보험료 8% 할인  
현대해상은 티맵모빌리티와 업무제휴를 통해 티맵의 사용자들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운전할인 특약(UBI)’ 가입대상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할인은 오는 6월 1일 이후 책임 개시 되는 계약부터 시행한다. 티맵을 사용자 대상으로 한정특약가입 조건에 제한 없이 직전 6개월동안 500km 이상 주행한 운전정보를 바탕으로 안전운전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보험료 8%를 할인해 준다.

티맵 사용자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보험사가 안전운전점수를 실시간으로 조회한다.

흥국생명이 의심거래보고제고를 강화한다.

◆소비자의 ‘소중한 자금’ 지키기  
흥국생명은 다음달 19일까지 ‘자금세탁 의심거래 신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 및 자금세탁 등에 대한 임직원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업무 특성화 교육과 임직원의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의심거래보고제도(STR)를 교육하고, 자금세탁 목적의 의심거래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신고대상은 ▲금융거래 중 의심거래 정황이 포착된 거래 ▲자금의 원천 및 형성에 불법적 요소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탈세 및 횡령이 의심되는 거래 등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거래를 보고한 임직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자발적 참여를 증진시켜 불법 금융거래 및 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DGB생명이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변액보험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 성과

DGB생명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인 306억원을 기록했으며 계약서비스마진(CSM)은 6923억원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3.4% 증가했다. CSM 수치는 6923억원으로 순보험부채 대비 CSM이 차지하는 비중(13.5%)은 업계 상위권이라는 설명이다.

과거당기순이익 추이에는 등락이 있었지만 CSM상각 등을 통해 사회계제도(IFRS17)에서는 회사의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성장궤도에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DGB생명은 새 제도에 적응에 총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770억원에 이어 올해는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본을 확충한 것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유사시 韓 뱅크런 더 빨라 ‘차액결제 담보비율 인상’ 시급

» 1면 ‘모바일 뱅크런에...’서 계속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의 예치금 중 63%는 기업고객 자금이었고, 예금자 보호한도 25만달러(약 3억원)를 넘는 비중은 68%에 달했다. FDIC가 개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자 손실을 우려한 고객들이 대규모 인출을 강행했다.

◆韓 뱅크런 더 빨라... ‘차액결제 담보비율’ 높여야

문제는 비단 이 같은 문제가 미국에서만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달 24일 간담회에 참석해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모바일뱅킹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뱅크런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초 미국 워싱턴DC 출장 중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예금 인출 속도는 100배는 빠를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2023년 미국은행 파산 현황〉

은행명 (설립연도)	실버게이트 (1988)	실리콘밸리은행 (1983)	시그니처은행 (2001)	퍼스트리퍼블릭 (1985)
파산(폐쇄)일	3월8일	3월10일	3월12일	5월1일
자산규모(달러)	114억	2086억	1100억	2330억

〈차액결제 담보비율 인상 계획 변경안〉 (단위:%)

	현재	2023.08	2024.08	2025.08
차액결제 담보비율	70	80	90	100

뱅크런에 따른 파산을 예방하기 위해 떠오르는 방안은 ‘차액결제 담보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차액결제 담보비율은 한국은행이 은행 간 차액결제 실패를 대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놓는 담보증권의 비율을 말한다.

현재 결제시스템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일정시간 동안 발생한 이체 등의 자금거래를 취합해 각 금융기관마다 줄 돈, 받을 돈을 계산해 차액만을 결제한다. 한국은행은 그 중 소액거래를 대상으로 다음달 오전 11시 차액을 정산하고 있다. 은행이 갑자기 파산에 이를 경우 차액 정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은행은 차액규모의 70%에 해당하는 국제·통화안정채권 등을 한국은행이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리콘밸리은행과 퍼스트리퍼블릭은행 등의 사태로 담보비율을 100%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차액결제담보비율은 올해 2월 80%까지 올린 뒤 2025년 2월까지 100%까지 인상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2025년 8월(100%)까지 연기된 상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차액결제 담보비율은 자금시장상황과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담까지 살펴야 한다”며 “미국의 은행이 수시간 이내에 파산한 사실과 한국의 온라인 결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비율인상을 계속 미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 매력적인 청록빛·심장 뛰는 배기음... 도로 위 미친 존재감



## BMW 뉴 XM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측면 날렵한 쿠페 스타일 적용  
제로백 4.3초·653마력 81.6kg.m  
후륜조향 기술·흔들림 없는 시트  
최신 M 전용 iDrive 등 탑재



BMW M 전용 초고성능 SAV BMW 뉴 XM.

“실제로 처음 보는데 디자인이 너무 예쁘네요.” “이 차가 그 차(지드래곤이 소개했던) 맞아요?”

BMW의 고성능 브랜드 M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인 ‘뉴 XM’은 세련된 외관과 고성능 차량 특유의 배기음이 조화를 이루며 도로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특히 품격 높은 차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차감(차에서 내릴 때 느끼는 만족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시승을 진행하는 동안 뉴 XM에 대한 행인들의

질문은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 XM은 외관 디자인에서 럭셔리 브랜드임을 직감할 수 있다. BMW 디자인 핵심인 키드니 그릴이 전면에서 자리하고 있으며 오묘한 청록빛을 내는 ‘케이프 요크 그린 메탈릭’은 다른 자동차에서 볼 수 없는 색을 보여준다. 그릴 테두리와 창문을 감싸는 ‘나이트 골드’는 XM만의 차별화된 디자인을 한층

어울린다. 측면은 쿠페 스타일을 적용해 날렵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뉴 XM의 시승은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충청남도 서산 해미읍성을 거쳐 돌아오는 250km 구간에서 진행했다. 주행 성능은 ‘2.7톤의 대형 SUV 맞아’라는 착각을 할 정도로 뛰어났다. 가속력은 2.7톤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경쾌했다. BMW가 공개한 제로

백 4.3초의 성능을 실감할 수 있었다. 뉴 XM은 489마력과 66.3kg.m의 토크를 내는 V8 4.4L M 트윈파워 터보 엔진과 197마력을 내는 전기 모터의 조합을 통해 합산출력 653마력과 81.6kg.m이란 압도적인 성능을 구현한다. 전기 모터가 구동되지 않아도 폭발적인 가속력을 제공했다. 가속 페달을 밟자 가볍게 치고 나갔다. 한적한 새벽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놀라운 가속력과 묵직한 배기음은 운전의 재미를 더했다. 도심에서는 순수 전기 모드만으로 62km 주행할 수 있어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다.

주행 안정성도 뛰어났다. 고속 구간에서 속도를 높이자 차량이 도로에 달라 붙어 달리는 기분이 들었다. 후륜조향(BMW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기술을 적용해 코너링과 굽잇길에서는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 현상없이 민첩하게 빠져나갔다. 시트는 허리를 감싸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 탑승자들의 흔들림도 줄여줬다.

뉴 XM에는 최신 M 전용 iDrive와 BMW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이 탑재됐다. BMW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은 BMW OS 8 기반의 12.3인치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와 14.9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구성됐다. 운전자 중심으로 구현된 넓은 디스플레이는 조작이 편리했고 시인성도 뛰어났다.

실내 공간은 여유로웠다. 특히 2열 공간의 거주성은 경쟁 차들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여유로운 공간과 특수 설계된 시트 쿠션은 2열 탑승자에게 BMW 플래그십 모델에 탑승한 듯한 높은 수준의 안락함을 제공했다. 적재공간도 넉넉하다. 경량 골프백과 보스틴 백 4개씩 넣어도 무방하다.

달리는 즐거움과 넓은 실내 공간, 소파와 같은 안락한 시트 등은 프리미엄 패밀리 SUV로 부족함이 없다. BMW 뉴 XM 가격은 2억219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정기선, 美법인 참전용사 가족에 감사 인사

(HD현대 사장)

美 앨라배마 현지법인 등 점검 방문  
공장 직원들 격려 인사, 간담회 진행  
6·25 참전용사 가족 韓 깜짝 초청



정기선 HD현대 사장이 최근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 위치한 HD현대일렉트릭 변압기 공장에서 참전용사 가족으로 둔 직원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기선 HD현대 사장이 방미 기간 중 미국 앨라배마 현지법인 등을 방문해 직원 격려 행사를 가졌다. 정 사장은 6·25 전쟁 참전용사의 가족이 미국 법인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만나 한국 초청을 깜짝 제안하기도 했다.

HD현대에는 정 사장이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 있는 HD현대일렉트릭 변압기공장,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 있는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일렉트릭 법인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정 사장은 가족과 떨어져 먼 타지에서 지내는 주재원들을 격려하고, 북미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현지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2011년 설립된 HD현대일렉트릭 앨라배마 법인은 3만8678㎡(약 1만1700평) 규모의 생산공장에 38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HD현대의 건설기계부문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도 애틀랜타시에 법인을 운영하

고 있다.

정 사장은 특히 HD현대일렉트릭 변압기 공장에 재직 중인 직원 6명이 6·25 전쟁 참전용사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따로 만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HD현대에는 설명했다. 정 사장은 학군사관후보생(ROTC) 43기 출신으로 파주 제701특공연대에서 근무를 마치고 육군 중위 전역했다. 부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도 ROTC 13기로 군 생활을 마쳤다.

정 사장은 이들 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방산기업의 CEO로서 참전용사의

용기와 희생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분들께서 목숨을 걸고 지킨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한국 초청을 깜짝 제안했다고 한다.

6·25전쟁 참전용사의 아들로, HD현대일렉트릭 앨라배마 법인에서 2012년부터 일하고 있는 직원 ‘제프리 워’씨는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아 너무 기쁘다”며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발전한 한국의 모습에 아주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양성운 기자

## 두산, 협동로봇으로 북미시장 공략 박차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파트너십

두산이 미국 최대 산업자동화 솔루션 기업과 손잡고 북미에서 협동로봇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1일 두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문홍성(두산 대표), 류정훈 두산로보틱스 대표, 에드 몰랜드 로크웰 오토메이션(Rockwell Automation, 이하 로크웰) 부사장, 이윤하 로크웰 오토메이션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로크웰은 북미 최대의 산업 자동화 및 정보화 전문기업으로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제조업 생산시설 자동화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100개 이상 국가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중 북미 시장 매출 비중이 60%에 이른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두산의 자회사 두산로보틱스는 로크웰에 독점적으로 협동로봇을 공급하고, 자동화 설비 및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공정에 필요한 협동로봇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사가 개발한 협동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두산의 국내외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대외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 대표는 “산업 자동화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로크웰과의 협업을 통해 협동로봇 관련 솔루션을 다양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협동로봇 공급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삼성전자, 인텔13세대PC 신제품 3종 선보

갤럭시 북3·올인원·데스크탑

삼성전자가 데스크탑에도 인텔 13세대 프로세서를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2023년형 ‘갤럭시 북3’, ‘삼성 올인원’, ‘삼성 데스크탑’ 등 PC 신제품 3종을 1일 출시했다.

갤럭시 북3는 전자 프로 모델의 프리미엄 슬림 메탈 디자인을 확대 적용했다. 15.4mm 얇은 두께에 1.57kg 무게로 휴대성도 높다. 가격은 109만원부터다.

그래픽은 외장형 인텔 아크 A350M으로, SSD 슬롯 2개를 제공해 용량 확장도 가능하다. 디스플레이는 39.6cm(16형)로, 그라파이트와 실버 2가지 색상으로 출시한다.

2년만에 새로 나온 일체형 PC 삼성 올인원은 좌우 너비와 두께, 스탠드 폭을 줄여 더 슬림해졌다. 후면에는 업그레이드 도어를 통해 메모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여러 포트도



삼성 올인원

후면과 디스플레이 측면에 배치해 사용성도 높였다. 디스플레이는 60.5cm(24형) 크기에 돌비 애트모스 3D 사운드 기술을 적용한 스피커도 더했다. 데스크탑도 새로 나왔다. 타워형과 슬림형 두가지 종류. 유선형 디자인으로 매끄러운 디자인을 구현했다. 타워형은 측면 팝업도어로 쉽게 본체를 열어 내부 청소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래픽 카드는 외장형 엔비디아 제품을 탑재해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 /김재용 기자 juk@

## SKIET, 中 전기차 배터리 시장 공략 박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9위  
中 신왕다에 분리막 공급 협력

이차전지 분리막 생산기업 SK아이 이테크놀로지(이하 SKIET)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선다.

SKIET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9위 기업(2022년 SNE리서치 기준) 신왕다(Sunwoda)와 배터리 분리막 공급 등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

다고 1일 밝혔다.

SKIET가 전기차용 배터리 분리막을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에 대량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IET는 중국 창저우공장에서 생산한 분리막 제품을 신왕다에 공급할 예정이다. SKIET는 중국에서 IT, 전자제품용 분리막을 신왕다그룹에 공급하고 있었는데 그 영역을 전기차 배터리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신왕다의 전기차용 배터

리 주요 고객사는 지리자동차, 동평자동차, 상해자동차, 볼보, 폭스바겐 등이 있다.

양사는 이날 MOU를 기반으로 기술력과 품질,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리막 공급 확대와 관련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상호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중국 시장을 넘어 해외에서도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 넥슨 '프라시아 전기', 스토리·재미·대중화로 흥행 돌풍

PC·모바일 양대 마켓서 1위 기록  
공성전 대중화로 진입장벽 낮춰  
스토리텔링·어시스트 모드 호평

넥슨의 '프라시아 전기'가 출시 이후 양대 마켓서 1위를 기록하는 등 앞으로의 흥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또 전체 매출 중 PC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모바일 매출 순위가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호평을 얻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의 초대형 MMORPG '프라시아 전기'가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존 MMORPG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차별화된 콘텐츠와 깊이 있는 재미를 앞세워 진정한 MMORPG를 완성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상위 플레이어들의 전유물이었던 '거점'을 누구나 보유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게임성을 선보이고, 보유한 거점을 결사원(길드원)들과 함께 경영하는 재미를 더해 한 걸음 더 나아가 각자 부여된 역할을 통해 고도화된 커뮤니티 경



프라시아 전기 키비주얼.

/넥슨

험을 제공한다. 여기에 '프라시아 전기'에 더욱 몰입하도록 하는 완성도 높은 스토리텔링과 사운드(BGM), 그래픽을 선사한다.

'프라시아 전기'는 한렐름(서버)안에 21개의 거점을 제공해 누구나 쉽게 거점을 공략해 보유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췄고, 더 나아가 거점을 경영하는 재미까지 선사한다. 특정 결사가 거점을 독점할 수 없도록 드넓은 심리스 월드에

서 먼 거리를 캐릭터가 직접 이동하도록 설계했고, 각 영지별로 보스 몬스터, 각종 자원, 사냥터의 밸런스를 조정해 '공성전의 대중화'를 실현했다.

'프라시아 전기'의 핵심은 플레이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재미다. 캐릭터 성장은 모든 개인이 공유하는 목표지만 결사의 목적은 제각기 다르다. 어떤 거점을 공략할지, 다른 결사들과 어떤 관계를 만들지 등 수많은 플

레이어들이 모여 있는 프라시아 세계에 결사가 나아가갈 방향 및 전략은 결사원들이 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한 편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거점 공략에 성공한 결사들은 거점을 방어하거나 결사를 위한 연구, 제작에 몰두하며 경영에 힘쓰고 있고, 상대방의 거점을 공략할 결사는 파훼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2주간격으로 열리는 추가 주둔지들과 더 나아가 높은 등급의 거점 '요새', '론도 대성채'까지 오픈되면 더욱 생생하고 재밌는 스토리들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라시아 전기'를 처음 마주한 플레이어 대부분이 몰입감 넘치는 스토리에 호평을 보낸다. '프라시아 전기'는 엘프와 인간의 군상극을 그리고 있으며, 메인 스토리를 해금하며 프라시아 대륙의 역사, 인간 연합 내 갈등과 화합 등 게임 세계관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현존 최고 수준의 그래픽과 연출 역시 재미에 풍미를 더한다. 배경, 몬스터, 초목, 캐릭터 복장 등 게임 속 모든 요소를 4K 그래픽으로 구현했다.

게임에 접속하지 않아도 캐릭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능의 '어시스트 모드' 역시 많은 플레이어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꾸준한 플레이가 필요한 MMORPG를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으로, 인게임 내 캐릭터 상황, 자동정비, 추종자 재 파견 등 게임에 접속하지 않아도 확인 및 조작이 가능해 '프라시아 전기' 플레이어들에게는 필수 사용 기능으로 자리 잡았다. 플레이어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어시스트 모드를 활용하며, 자신만의 템포로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어서 플레이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 만큼 게임 접속률은 높은 수치로 유지되고 있다.

김대환 넥슨 신규개발본부 부사장은 "프라시아 전기"는 그간 경험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재미와 MMORPG 본연의 재미를 갖추기 위해 모든 측면에서 공을 들인 프로젝트다"라며 "좋은 평가를 보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서비스로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거대자본으로 승자독식 우려” vs “K-콘텐츠 글로벌 확산 기대”

'넷플릭스 韓투자' 엇갈린 반응

韓 OTT 1위 티빙, 영업적자 56%  
더 이상의 투자 확대 쉽지 않아  
넷플릭스 점유율 38%... 장악력 ↑

창작 산업 부활·연계산업 후방효과

넷플릭스가 향후 4년간 K 콘텐츠에 25억 달러(약 3조 3000억원)를 투자에 대해 OTT 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OTT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가입자 이탈 등 정체가기에 놓인 상황에서 돈을 벌기 위해 아시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나서지 않았어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냉담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미 '오징어 게임'에 제작비로 253억원을 들였지만, 9억 달러(약 1조 2000억원)의 경제적인 수익을 내면서 한국의 콘텐츠의 가성비가 뛰어



넷플릭스.

/넷플릭스

나다고 평가하고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그간 투자 이상의 수익을 냈다. 때문에 제작 규모와 제작 편수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4년 간 3조 3000억원을 투자하는 그간 넷플릭스가 한국 작품에 투자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넷플릭스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한국 콘텐츠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내 OTT들에게는 이번 넷플릭스의 투자 발표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내 OTT 기업들도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적자를 내며 콘텐츠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 OTT 업체들에게는 더 이상의 투자 확대가 쉽지 않다.

국내 OTT 업체 1위인 티빙은 지난해 영업적자가 전년보다 56%나 늘어난 119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웨이브도 지난해 영업적자가 전년 대비 2배

나 증가한 121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국내 시장의 38%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즌과 합병해 국내 업계 1위로 부상한 티빙은 18%, 웨이브는 14%, 쿠팡플레이는 11%이다. 왓챠의 점유율은 미미한 상황이다. 왓챠는 회사 매각과 동시에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다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다.

OTT 업계에서는 "거대자본을 동원한 넷플릭스가 결국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가 될 수도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금도 넷플릭스의 쏠림 현상이 심한 데, 향후 넷플릭스가 콘텐츠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시장의존도가 더 심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의 대규모 투자는 망 사용료 법안에서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업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체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도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ISP(인터넷제공업체)에게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일부 업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태현 웨이브 대표는 "글로벌 플랫폼이 한국 드라마 및 영화에 투자하게 되면 창작 산업은 살아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콘텐츠업체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투자는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에 자금줄이 될 수 있다"며 "190개 이상 국가로 서비스되는 넷플릭스를 통한 K콘텐츠, 한류문화 확산 등 효과도 뚜렷하다. 또 IP를 바탕으로 한 웹툰, 웹소설, 음악 등 연계된 콘텐츠 산업의 후방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채윤정 기자 echo@

## 이창양, 韓-美 첨단기술 동맹 '보스턴 다이내믹스' 깜짝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현대차 그룹 로봇 개발 핵심 거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수행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첨단 로보틱스 사업 글로벌 핵심 거점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깜짝 방문했다.

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 내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 등과 함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찾아 창업자 겸 로봇 인공지능(AI) 연구소 소장인 마크 레이버트, 제이슨 피오릴로 최고법무책임자(CLO)

등을 만났다.

이번 방문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26일 양국이 워싱턴 공동성명을 통해 "외교 안보를 넘어 첨단 분야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가자"고 다짐한 가운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한미 첨단 기술 동맹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 일행은 회사 내에 마련된 역사관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초창기부터 개발한 다양한 역대 로봇들을 둘러본 후 회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1992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분사해 설립된 보스턴 다이내믹스

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로봇 개발로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로봇 운용에 필수적인 자율주행(보행), 인지, 제어 등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1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

이 장관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연구 개발(R&D) 랩에서 이 회사의 대표적인 로봇 모델인 스팟, 아틀라스, 스트레치의 주요 특징 및 적용 기술에 대한 소개를 듣고 로봇들의 다양한 동작 시연을 직접 참관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삼성전자, 가정의달 'TV 슈퍼빅세일'

17년 연속 TV 세계판매 1위 기념

삼성전자 TV가 가정의달에도 저렴하게 판매된다.

삼성전자는 5월 1일부터 전국 오픈라인 매장에서 '2023 삼성 TV 슈퍼빅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17년 연속 TV 세계 판매 1위를 기념해 마련됐다. 98형 초대형 TV와 더 프레임, TV 액세서리 등을 대상으로 한다.

98형 Neo QLED, QLED TV는 각각 최대 300만원, 1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더한다. '거거익선' 트렌드로 전년

대비 판매가 3.5배나 성장하는 98형 초대형 TV 수요를 겨냥했다.

더 프레임은 40만원 추가 할인 혜택과 함께 샌드골드 색상의 메탈 소재 더 프레임 베젤 동시 구매 시 최대 75% 할인 혜택을 증정한다.

네오 QLED와 QLED 구매시 TV선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액세서리 더 트레이를 5만원에 제공한다.

5월 15일 전에 행사 제품 구매시 최대 34만원 상당 더블 혜택도 있다. 5월 중으로는 네오 QLED 날말 퀴즈와 룰렛 당첨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했다. /김재용 기자 juk@



# DAVID HOCKNEY

## & BRITISH POP ART



### 1960s Swinging London

데이비드 호크니 & 브리티시 팝아트

**2023. 3. 23 ~**  
**2023. 7. 2**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실적악화·SG사태에 투자심리 악화... 증시 변동성 커진다

4일 美 연준 정책금리 결정 따라  
주식시장 단기 방향성 달라질듯

이번주 코스피 2420~2550 예상  
“대형주 중심 반등 가능성 높고  
배터리 제외 성장주 수급 확산”



지난달 28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2495.81)보다 5.72포인트(0.23%) 상승한 2501.53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50.21)보다 7.38포인트(0.87%) 하락한 842.83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38.0원)보다 0.3원 떨어진 1337.7원에 마감했다.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부진한 1분기 실적,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사태, 금융시장 불안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5월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향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수급 악화, 금융불안 우려 지속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FOMC 결과가 증시 단기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2501.53으로 전주 대비 1.68% 하락했으며 코스닥지수도 842.83으로 2.99% 떨어졌다. 최근 2차 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한풀

썩었다. 이에 더해 국내 기업 실적 악화, SG증권 창구에서 대거 쏟아져 나온 매물 영향으로 일부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미국 등 각국의 정책금리 결정과 경제지표 발표 등 대외 이벤트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4일 FOMC 정례 회의를 열어 정책금리를 결정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0.25%포인트 인상 확률은 87%, 금리 동결은 13% 수준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25bp 인상은 이미 금융시장에서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향후 물가 궤적, 미국 은행권 리스크, 미국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판단을 어떻게 언급하는지에 따라 주식시장의 단기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변동 폭으로 2420~2550을 제시했다

FOMC, 유럽중앙은행(ECB), 호주중

양은행(RBA) 회의 등 중앙은행 이벤트 이외에도 주중 주식시장은 지표와 실적 이벤트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대장주들의 실적은 종료가 된 만큼, 이들 실적이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으나, 애플 실적, 수출 및 ISM, 국내 신용잔고 이슈 등 여타 대형 대내외 이벤트와 맞물리면서 개별 업종 및 종목군 간에 변동성 차별화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동성 확대 장세에는 실적이 좋은 코스피 대형주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혁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5월에는 달라진 증시 분위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코스피는 중국 노동절(5월1일), 미국 FOMC(5월3일)를 기점으로 대형주 중심의 반등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은 2차전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배터리를 제외한 성장주로 수급이 확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집값 하락폭 3주째 둔화... 매수 심리는 ↑

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주비 0.07% ↓  
노원구 -0.03% → -0.04% 상승 전환  
도봉구 -0.23% → -0.29% 하락폭 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3주 연속 둔화했다. 매매수급지수는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08%)보다 0.01%포인트(p) 축소되면서 3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는 노원구(-0.03% → -0.04%)가 중계·상계동 구축위주로 급매물 소진되며 지난해 1월 첫 주(0.03%)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성북구(-0.16% → -0.16%)는 정릉·길음동 위주로 하락폭이 이어졌고, 광진구(-0.16% → -0.15%)는 광장·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도봉구(-0.23% → -0.29%)는 창·쌍문·방학동 대단지, 강북구(-0.11% → -0.13%)는 미아·변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커졌다.

서남권에서는 강서구(-0.21% → -0.19%)가 내발산·염창동 구축, 관악구(-0.17% → -0.15%)는 봉천·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구로구(-0.18% → -0.21%)는 항·고척동 위주로 하락폭이 증가했다.

동남권의 경우 송파구(0.04% → 0.04%)가 3주 연속 상승세다. 강남구(-0.01% → -0.02%)는 지난해 5월 마지막 주(0.01%) 이후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고, 서초구(0.04% → 0.03%)는 2주째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심리 위축과 집값의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가 유지 중”이라면서도 “일부 선호도가 높은 지역 내 주요 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혼조세 양상

을 보이며 가격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 축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매수급지수는 8주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24일 기준)는 74.9로 전주(73.6)보다 1.3p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둘째 주부터 계속 60선에 머물다 3월 넷째 주(70.6)에 70선으로 올라선 이후 계속 회복하는 모양새다. 기준선 10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여전히 매수세가 약한 모습이지만,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시장 경착륙 방지책과 최근 급매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8주째 올랐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김대환 기자 kdh@

## 용인 등 전국 9개 단지서 총 3367가구 분양

### 분양 캘린더

e편한세상용인역플랫폼시티 등 청약

5월 첫째 주에는 전국에서 9개 단지 총 3367가구(일반분양 303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마북동 ‘e편한세상용인역플랫폼시티’,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해링턴플레이스진사’, 충북 청주시 송절동 ‘해링턴플레이스테크노폴리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건보주택의 경우 문을 여는 단지가 없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 연휴를 앞두고 분양시장이 휴식기에 들어간다.

DL이앤씨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일원에 ‘e편한세상 용인역플랫폼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투시도. /DL이앤씨

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12개동, 전용면적 59~84㎡, 999가구 규모다. 단지는 첨단자족도시로 개발되는 용인플랫폼시티에 조성될 백화점, 쇼핑몰, 호텔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가깝게 누릴 수 있다. 플랫폼시티의 중심부에 위치한 GTX-A 용인역이 오는 2024년 상반기 개통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착공 면적 감소

국토부, 준공면적은 전년비 9.7% ↑

올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와 착공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1일 국토교통부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8.5%, 착공 면적은 28.7% 줄었다. 반면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다.

최근 5년간 1분기 건축 허가 연면적은 연평균 1.5% 증가했고, 동수는 9.0% 감소했다. 올 1분기 건축 허가 면적은 수도권(1561만7000㎡, 14.1% ↓)과 지방(2156만4000㎡, 4.1% ↓) 모두 감소했다.

지역별로 ▲대전 271.6% ▲인천

87.8% ▲부산 50.4% 순으로 9개 시도에서 건축 허가 면적이 증가했고 대구, 충북, 전남, 세종, 경기, 경북, 광주, 경남은 감소했다.

1분기 착공 면적은 수도권(927만8000㎡, 32.3% ↓)과 지방(942만2000㎡, 24.9% ↓)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지역별로 ▲대전 31.8% ▲부산 26.7% ▲강원 12.0% 순으로 3개 시도에서 착공 면적이 증가하고 대구, 인천, 세종은 큰 폭으로 착공 면적이 감소했다.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3166만6000㎡, 동수는 9.1% 감소한 3만3271동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준공 면적은 수도권(1693만9000㎡, 12.3%)과 지방(1472만6000㎡, 6.9%) 모두 증가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 하반기 자율주행 레벨3 車 출시 수혜株



센싱카메라 핵심공정 장비 선두주자  
센서 성장전망... 적정주가 3만1500원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은 퓨런티어에 대해 자율주행을 위한 센싱 카메라 핵심 공정 장비 시장의 글로벌 선두주자로서 자율주행 시대에서의 수혜를 기대했다. 주가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적정 주가로는 3만1500원을 제시했다.

김재무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벤츠

는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해 독일과 미국에서 승인 받았고, 국내에서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SUV ‘EV9’, 제네시스 ‘G90’에 자율주행 레벨3 단계 수준의 기술을 탑재할 계획”이라며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도 연내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카메라를 비롯한 라이다, 레이더 등 각종 센서 시장 또한 자율주행 시대에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퓨런티어는 2009년에 설립된 카메라 조립 장비와 검사 장비 제조업체로 지난해 2월 코스닥 시장에 특례 상장했다. 최대주주는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

의 검사 자동화장비 제조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하이비전시스템(39.84%)이다.

국내 주요 카메라 모듈 생산 업체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용 센싱 카메라 조립·검사 장비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 중인 삼성전기, LG이노텍뿐 아니라 현대모비스를 통해 현대·기아차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엠씨넥스, 세코닉스 등도 고객사로 두고 있다.

리서치알음은 글로벌 전기차수증가와 자율주행 탑재 지속 확대에 따라 카메라 모듈기업의 케파(생산능력) 증설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화려함·디테일 장식·실크 소재... 대세 바뀐 '패션 트렌드'

## 꾸안꾸 가고 꾸꾸

### (상) 패션

#### 삼성물산

장소 관계 없이 실용적 스타일 론칭  
신세계인터내셔널

세틴·실크 등 소재 활용한 것 대표적

코로나19의 완전한 엔데믹(풍토병화)에 접어들면서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주목해야 할 때가 왔다. 많은 이들이 재택근무 당시 즐겨 찾던 '원마일웨어'는 넣어두고 오피스룩과 여가활동을 위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있다. 또 마스크 착용으로 신경쓰지 않았던 메이크업에도 신경쓰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180도 달라진 트렌드를 세 편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꾸안꾸(꾸민 듯 안 꾸민다는 의미의 신조어)'가 가고, 이제는 '꾸꾸(꾸미고 또 꾸민다는 의미의 신조어)'가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리오프닝 효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패션업계도 올해 본격적인 실내 마스크 해제와 함께 호조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지난해 소비자들의 패션에 대한



그룹 뉴진스가 15일 서울 DDP에서 열린 '2023 F/W 서울패션위크' 오프닝 포토콜에서 포즈 취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관심 증가에 힘입어 업계 최초로 매출 2조원(2022년 기준)을 넘어서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은 지난해 매출 2조10억원과 영업이익 18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13.2%와 80.0% 증가했다. 해외 브랜드와 자체 브랜드인 '에잇세컨즈', 온라인몰에서의 판매 등 고른 성장이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측은 보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도 지난해 매출 1조5539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고, 영업이익 1153억원으로 전년보다 25.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창사 이래 최초로 10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운영하는 패션부문 한섬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하며 호실적을 달성했다. 한섬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11.2% 증가한 1조5422억원, 영업이익은 10.6% 늘어난 1683억원을 기록했다. 해외패션(17.3%), 여성 캐주얼 브랜드(15.6%), 남성복(14.6%) 등 고가 브랜드의 매출 신장세가 높아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외출이 늘어나면서 패션부문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패션업계는 이러한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자체 브랜드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삼성물산 측은 "편집샵 플랫폼을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브랜드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불륨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차원에서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2030세대를 겨냥한 여성복 브랜드 '디

애퍼처'를 최근 론칭했다. 획일적인 오피스룩에서 벗어나 장소와 시간에 관계 없이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스타일링이 특징인 브랜드다. 앞서 구호플러스, 코텔로, 샌드사운드 등도 연달아 론칭하는 등 브랜드 자체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확장하고 자체 브랜드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스튜디오 톰보이'는 남성복 라인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5년 내 연 매출 2000억원대로 높일 계획이며, '지컷'과 '보브' 또한 불륨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외출이 늘며 화려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스타일이 인기를 끌 전망이다. '원마일웨어', '꾸안꾸 패션'의 시대가 가고 디테일 장식과 파티 의상을 연상시키듯 반짝이는 '세틴' '실크' 등의 소재를 활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존 크롭티, 와이드팬츠를 넘어 아우터, 수트까지 다양해지며 Y2K 스타일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의 2023 패션 트렌드 조사 결과, 2000년대 감성의 체크 패턴 셔츠를 아우터처럼 입는 '셔켓'(셔츠와 재킷의 합성어) 스타일이 급부상하며 '체크 셔츠' '셔츠 재킷'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정장 재킷 대신 과거 유

행했던 '조끼' 스타일의 인기로 '조끼 정장'(180%), '수트 베스트'(60%)도 많이 검색됐다. Y2K는 특정 시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인기를 끌 전망이다. 성별, 계절의 경계 없는 뉴트럴 패션(Neutral fashion)도 인기다. 개성과 취향이 다양해진 데다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각 나라 계절에 맞는 패션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룩의 경우, 격식을 갖추면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복장이 인기다. 한 예로 이랜드의 여성 스과 브랜드 미소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는 '뉴포멀 컬렉션'을 선보여 MZ세대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패션업체들은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패션플랫폼 W컨셉은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3층에 공식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 소비자를 만나고 있으며, 온라인 강자 무신사도 입점 브랜드 체험 공간인 '무신사 테라스'와 P/B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을 확대 지역에 오픈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경기 침체로 인해 패션업계가 위축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하지만, 일상 복구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링을 시도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해당 수요를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노동절 앞두고 감염 폭증... 2차 대확산 우려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6752건 양성·지난주비 2.5배 늘어  
대이동 맞물려 확산 기폭제 될 수도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늘면서 일각에서 경고했던 5~6월 2차 대확산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졌다. 특히 수백만명이 이동하는 5일 간의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감염 사례가 증가했다.

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6752건의 양성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일주일 전 2661건 대비 2.5배나 늘었다. 감염자 수로만 보면 작년 12월 하루 최고치인 700만명에 크게 못 미치지만 중국 보건 당국도 감염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3월 말부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노동절 연휴를 맞아 천안문 광장을 둘러보고 있다. /AP·뉴시스

터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5월과 6월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2차 파동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단기간에 감염이 확산돼 동시다발적인 감염과 회복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기적으로 노동절 연휴와 맞물린 것도 우려를 키웠다. 대이동이 코로나19 확산 기폭제가 될 수 있어서다.

중국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연휴 첫

날인 지난달 29일 철도 승객은 1966만 1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날 운행된 열차 수도 1만2064대로 사상 최대다. 장원홍 푸단대 부속 화산병원 감염과 주임은 인민일보에 "발열진료소에서 코로나19 양성률이 높아지는 등 2차 확산의 조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감염자 수가 큰 폭으로 늘지는 않고 있어 현재 상황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대유행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백신 접종과 1차 감염으로 얻은 면역력은 심각한 재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방역 규제를 완화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석 달 만에 인구의 82%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 주임은 "감염자는 더 늘겠지만 1차 대유행 당시보다 훨씬 적을 것이며, 병원이 중증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작년 12월과 1월의 상황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교원그룹, 공연장 등 온라인서 '대관 신청'

간편한 '교원스페이스' 도입

교원그룹이 지역사회 개인, 단체, 기업 등이 자사의 세미나실, 공연장, 강연장을 간편하게 대관해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관 신청 서비스 '교원스페이스(kyowon space)'를 도입했다.

1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해 직원 복리후생 일환으로 사옥 리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교육,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활용하는 한편 외부인들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개방했다.

이어, 올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관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대관 신청 서비스를 열었다.

/김승호 기자

# 코웨이,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아이콘 얼음정수기 등 제품디자인 부문

코웨이가 '2023 iF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 제품디자인 부문에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

1일 코웨이에 따르면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비롯해 '스킨플러스연수기', '파워워터 공기청정기'가 본상을 수상했다.

작은 크기로 공간미를 높이고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낸 간결한 디자인으로 본질적 가치에 중점을 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아이콘 얼음정수기는 국내 얼음정수기 중 가장 작은 크기를 구현해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복잡한 시각적 요소를 단순화해 호평을 얻었다. /김승호 기자

# 공영홈쇼핑, 中企·소상공인 상품 800여개 판매

TV·모바일·라방 등 통해 선봬

공영홈쇼핑이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에서 800여 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판매한다.

1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올해로 4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행사는 이날부터

이달 28일까지 열린다.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상생소비운동에 앞장 서기 위해 TV,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등 전 채널을 동원해 지원사격을 나선다. TV 홈쇼핑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의 '공영라방'을 통해 동행축제 특가 기획전 등을 방송한다.

모바일 앱에선 매일 특가 상품을 선보이는 '타임딜'을 비롯해 다양한 기획전을 선보인다. 오는 9일 대전에서 열리는 동행축제 개막식 현장에선 TV홈쇼핑과 공영라방 특집방송을 라이브로 진행한다. 공영홈쇼핑은 동행축제를 맞아 소비진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펼친다. /김승호 기자

# SK매직, 신제품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

하루 최대 600개 얼음 생산

SK매직이 국내 최초로 하나의 코크에서 얼음과 물이 동시에 나오는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를 선보였다.

1일 SK매직에 따르면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는 한 번의 터치로 얼음과 물을

동시 출수하는 신개념 정수기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빙 성능으로 하루 최대 600개의 얼음을 생산하며 최대 940g까지 얼음 보관이 가능한 대용량 아이스룸을 탑재해 여름에도 다량의 얼음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산업부, 4년간 233억 들여 세계 최고 LFP 배터리 개발

핵심 광물가격 급등에 LFP 주목  
작년 시장 점유율 35%... 급성장  
삼성SDI·쉐메카 등 주요 기업 참여

정부가 세계 최고 품질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233억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한다. 급성장 중인 글로벌 LFP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본격적인 진출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고성능 리튬인산철전지 양극소재, 전해액, 셀 제조기술 개발 사업'의 수행 기관을 확정, 민·관이 함께 향후 4년간(2023~2026년) 233억원(정부 164억원, 민간 6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그동안 LFP 배터리는 가격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낮은 에너지 밀도와 짧은 주행거리 등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는



(왼쪽부터)SK은 전고체배터리와 리튬이온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의 LFP 셀, 삼성SDI의 ESS 배터리.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핵심 광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니켈·코발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최근 배터리 자체 성능도 개선되며 전세계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LFP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6%에서 2022년 35%까지 증가했다. 그간 LFP 배터리는 중국 기업들의 전유물로만 인식됐으나, 이같은 시장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과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6년 양산을 목표로 미국 애리조나에 세계 최초로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전용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SK은 지난 3월 인터배터리 전시회를 통해 자동차용 LFP 배터리 시제품을 최초 공개한 바 있다. 정부도 올해부터 LFP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시작해 우리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전략회의에서 LFP 배터리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배터리 전제품의 세계 시장 석권을 위한 민·관의 대응 노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두 가지 주요 목표는 ▲LFP 배터리 양극 소재의 국산화 ▲세계 최고 에너지 밀도를 가진 LFP 배터리셀 제조기술 개발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에너지 밀도(현재 160Wh/kg→목표 200Wh/kg) 제품 개발을 위해 기존보다 양극 전극을 두껍게 만들어 최대한 많은 리튬 이온들이 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두꺼워진 양극 전극이 리튬 이온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적합한 전해질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프로젝트에는 삼성SDI·쉐메카(배터리), 에코프로비엠(양

극재), 동화일렉트로라이트(전해질), 씨아이에스(장비) 등의 주요 기업들이 모두 참여한다. 이밖에도 경기대·서강대·서울과학기술대·성균관대·아주대·한양대 등의 학계, 세라믹기술원·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화학연구원 등의 연구기관도 참여해 우리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현재의 기술보다 높은 수준의 LFP 배터리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배터리 전 품목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에는 배터리 기업뿐 아니라, 소재·장비 기업 등이 모두 참여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프로젝트를 확대해 소부장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밸류 체인에서 세계시장 석권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1년새 4명 사망' 세아베스틸, 592건 안전법 위반

고용부, 328건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  
264건엔 약 3.8억 과태료 부과 예정

최근 1년간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한 결과 무려 592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세아베스틸은 사망 사고 이후 적발된 안전 조치 위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근로자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4월 7일 까지 세아베스틸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 세 곳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세아베스틸은 지난 작년 5월과 9월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 3월까지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 특별감독 대상이 됐다.

특별감독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찾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는 이 가운데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별감독에서는 법 위반사항 적발뿐 아니라, 세아베스틸의 경영방침과 조직 문화 등도 함께 살폈는데, 감독 결과 세아베스틸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실시한 중대

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회전부방호 조치 미실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됐고,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4일 퇴근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부 구역에서는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을 분리하지 않았고, 2022년 9월 8일 7.5톤 중량물을 차에 싣던 작업자가 중량물과 차 사이에 끼이는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두 사고 이후에도 세아베스틸에선 올해 3월 2일 연소탑 내부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 중 고온의 찌꺼기가 근로자를 덮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자기

규율 예방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 번째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방지업무 수행이 부적절하고,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 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수건강진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고 안전조치도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아베스틸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중기중앙회 'ESG 지원사업 한마당'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 한마당'을 연다.

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다.

ESG 트렌드 및 대응사례 세미나와 지원사업 설명회, 상담회, 자가진단 체험으로 구성된 행사에선 한국ESG크레딧 이영석 ESG실사총괄 등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글로벌 ESG 트렌드와 에코바디스(Eco Vadis) 인증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중기중앙회를 포함한 6개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 소개와 개별 상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코트라-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성과 유럽 등 신시장 판로 개척

우리나라 뷰티 기업들이 지난 3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볼로냐코스모프로프(Cosmoprof)' 뷰티 전시회 한국관 참가 이후 유럽 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CIS, 아프리카 시장 등 신시장 판로 개척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코트라(KOTRA)와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가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사업의 성과이다. 양 기관은 유치한 211개 바이어와 현장 상담 주선 등을 포함한 쏠주기 마케팅을 지원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이슈가 단순 '성분 함유' 수준에서 '효능 강화'로 확대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하은 기자 godhe@

## 벤처기업확인제도, 바이오·플랫폼 등 신산업 특성 반영

중기부,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

바이오, 플랫폼 등 신산업 특성을 반영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종 특화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바이오·플랫폼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기업의 성장성 평가 시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하고



세종시에 있는 중기부 청사.

있어, 제품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바이오 등의 업종과 다른 요소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플랫폼 등의 업종에는 부담으로 작용해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바이오 업종의 경우 신약 개발단계, 플랫폼 분야의 경우 활성 이용자 수 등을 평가지표에 추가 도입해 업

종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업이 지표를 직접 선택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 부담도 완화된다. 중기부는 기존 벤처기업에 대한 과거 벤처확인 기간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현재의 평가지표가 성과를 조기 창출하기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재확인 신청기업에 대한 전제 사업기간이 아닌 지난 확인기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평가지표를 통합하고 사업계획서도 벤

처·스타트업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양식으로 바뀐다. 기존 평가지표 중 주관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큰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 '지속가능경영', '사업의 구체화단계'는 사업계획서의 적절성으로 통합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

기존 사업계획서를 벤처투자 유치 및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SST(Problem-Solution-Scale up-Team) 방식으로 변경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하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확인관리시스템 내 '벤처기업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이 벤처기업의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도에 따른 업종·업력·지역별 벤처기업 통계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라 전했다. /김승호 기자



KYO  
WON 교원

wells

# 좋았어 달랐어 민고씨 웰스씨

웰스씨프라이즈



교원 웰스 공식 모델 이찬원



# 지방시대 이끄는 경북도 '전국생활체육전' 성황리 마무리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여명  
54개 경기장서 43개 종목 출전  
생활체육 통해 우정·화합 중점

지난달 27일부터 경북에서 열린 전국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30일 구미복합스포츠펀터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여명이 참가해 경북도내 11개 시군 54개 경기장에서 열린 43개 종목에 출전해 열전을 펼쳤다.

지난달 28일 개최식에는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등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였다.

경북도는 개최식에서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라는 주제 아래, 참가 선수단이 생활체육을 통해



지난 달 27일 구미복합스포츠펀터에서 열린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식. /경북도

우정과 화합의 시간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180분간 관객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다.

대축전 주 개최지인 구미를 대표하는 무용농악단, 세계 속에 K-치어리딩을 널리 알리고 있는 구미대학교 천무용단, 농악의 대중화와 전통놀이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한두레마당예술단의 공연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공식행사는 개식통고, 대한민국 최초 반도체 전자공업도시인 구미

를 상징하는 K-반도체를 형상화한 피켓을 든 선수단 입장, 대축전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 선수단을 격려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환영사, 생활체육을 통해 소통하고 정정당당한 경기를 약속하는 동호인 다짐 및 주제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제공연에서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경북의 저력과 '경북이 만들어가는 지방시대'의 비전을 담은 구미시립무용단

의 공연, 경북의 4대 정신 미디어 퍼포먼스를 선보인 K-타이거즈의 화려한 무대와 레이저·조명·불꽃놀이 등으로 구성된 복합멀티미디어쇼가 진행돼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주경기장 입구부대 행사장에는 경북 농수산물 판매장과 청년기업 제품 판매장,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실라리안 홍보관, 관광 안내 버스 등을 운영했고, 스포츠 안전체험, 소방 안전체험, 키즈존 등 체험 행사를 통해 활기차고 즐거운 경기장 분위기를 조성했다.

30일 폐회식은 축하공연, 성적발표, 종합 시상, 차기 개최지인 울산광역시에 대회기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된 4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경북에서는 2021년 전국체전과 2022년 전국소년체전에 이어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열림으로써 3년 간의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 기업애로 148건 중 111건 해소

경남도는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기업애로해소 전담팀(TF)을 신설한 이후 애로사항 148건을 발굴하고, 111건을 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주일에 2개 기업 방문 등 '찾아가는 애로해소 현장기동반' 및 경남도 누리집 내 '경남기업119' 창구 등 기업 밀착지원으로 애로해소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애로사항은 자금 문제가 가장 많았다. 경남도는 정책자금을 안내하고, 금융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부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경남테크노파크 '전문가 상담'으로 연결해주고 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순천시

### 온라인 플랫폼 '청년정책114'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1일 온라인 청년통합플랫폼 '청년정책114'를 오픈했다.

순천시는 인터넷, 모바일에 익숙한 청년세대를 겨냥하여 맞춤형 온라인 청년통합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각 부서의 120여 개 청년정책을 한곳에 모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청년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였다.

이와 동시에 플랫폼을 통해 청년센터 대관과 각종 청년센터 프로그램(꿈청클래스, 잡튜터링, 꿈청상담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진주시

### 의료급여 특화 '건강누리사업'

진주시는 지난 4월부터 2023년 의료급여 특화사업인 '진주시 건강누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 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70여 명을 선정해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보건소 한의사와 운동처방사를 연계해 개인별 맞춤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질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건소 한의사가 참여해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발생 원인, 주 증상 및 합병증에 대해 교육하고 운동처방사가 근력 강화 및 부위별 스트레칭, 통증 완화 운동법 등 체험형 맞춤교육을 진행한다.

/진주(경남)=김영찬 기자

완도군

### '국제 수산 식품 전시회' 참가

완도군은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완도군 관내 11개 업체와 함께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서울 국제 수산 식품 전시회」에 참가해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과 수산 식품을 홍보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주식회사 제이에스코리아, (유)완도세계로수산, 완도다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완도고금바다(주), ㈜해청정, 유한회사 해성인터내셔널, 우성물산, 대한물산, 완도전북수협, 완도망영어조합법인, 흥일식품 등 11개소가 완도군 공동관을 운영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전남도, '글로벌대학30' 대비... TF·자문위 가동

지·산·학 협력, 동반성장 도모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돼 유리

전남도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라이즈·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대학30' 선정에 적극 대응한다.

선정에 대비해 '전남도-도내 대학' 간 협업 전담조직(TF)과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글로벌대학30'은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이다. 지역 산업과 연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추고 지역 혁신과 대학 발전 선도를 위한 혁신 의지가 있는 30개 대학을 선정해 학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

원한다.

교육부는 2023년에 10개 내외, 2024년 10개 내외, 2025~2026년 각 5개 내외 대학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라이즈 시범지역과 글로벌대학30사업 대응을 위해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산·학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자체와 대학의 연계 강화와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라이즈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대학혁신 과제를 도출하는 등 글로벌대학 선정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을 계

획이다.

전남도는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내 대학이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평가 기준 중 지역적 특성 '실행체계 구축' 항목에서 별도의 평가 없이 10점을 부여받게 돼 공모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라이즈 체계 핵심축인 전담센터 준비도 순항하고 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라이즈 추진단 신설을 위해 관련 조례와 정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전남도 공무원 등을 파견해 오는 7월 조직과 인력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부산시의회 대표단, 함부르크 공식 방문 대전시, '강통 전세사기' 빨간불... 전국 최고

함부르크시의회, 개항축제 초청  
부산엑스포 격려·홍보할 계획

부산시의회 대표단은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함부르크시의회를 공식 방문한다. 방문단은 의장을 포함 정채숙, 박종철, 이승연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은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함부르크개항축제 방문을 요청한 카를라 파이트 함부르크시의회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양 의회는 2009년 우호협약 체결 후 활발히 교류해 왔으며, 지난해는 함부르크의회가 부산을 방문했다. 현지 시각으로 5월 5일부터 7일까지 하펜시티 인근에서 개최되는 함부르크개항축제는 부산이 주빈 도시로 선정되면서 축제 기간 한국-부산축제를 함께 개최된다.

방문단은 5일 안성민 의장의 개막식 축사를 시작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관, 정책홍보관, 중소기업

상품전시관 등을 방문·격려하고, VIP 리셉션에 참석해 주요 내빈에게 부산엑스포를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제해양법재판소를 방문해 엘버트 J.호프만 국제해양법재판소장과 백진현 전(前) 재판소장과 면담을 진행한다. 해사 소송의 전문성 담보와 기업 법률 서비스 비용 절감 등 해사전문법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부산유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방문단은 차세대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전기차 기반 공유 택시 업체 '모이아'도 방문한다. 모이아는 인공지능(AI) 기반 전기차 승차공유 서비스로 이동 경로가 맞는 여러 사람이 승합차를 함께 이용해 이동할 수 있어 친환경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존 산업과의 합의 과정과 공생 방법 등에 대해 의논한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

5월 불법증개행위 집중 점검 나서

대전이 전국에서 강통 전세사기 관련 피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강통전세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증개행위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 기간에는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신축 빌라 밀집지역 중심으로 중개대상물 거래계약 때 공인중개사의 거짓 언행,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무등록 불법증개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대전시가 특별 점검을 나선 데는 대전이 다른 지자체보다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아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건축행정시스템의 시도별 건축물현황을 보면 지난해 대전의 다가구주택은 총 3만466동, 대전 전체 주거용 건축물(9만894채)의 33.5%에 달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3월 조사 기준 연립·다세대 전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전세비율이 131.8%에 달했다. 매매가격이 1억원이라면 전셋값이 1억3000만원 이상인 것이다. 대전 중구 전세비율도 85.8% 등 대전시 전체 연립·다세대 평균 전세 비율은 100.7%로 전국 타 지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가담했던 건축왕 사례를 보면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있는 경우 등 강통전세 위험 지역은 이보다 많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 원룸 위주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비중이 높아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50억원대 전세사기 모두 다가구주택이 대상이었다.

/대전=원승일 기자 won@



# 마케팅, 재미있어야 산다... 유통가 '예능 콘텐츠' 봇물

**GS25**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예능형 콘텐츠 전환후 시청자 급증

**현대홈쇼핑** '앞광고 제작소' 공개  
권혁수 출연... 상품 마케팅 돌입

**롯데** 비투비 서은광 출연 '승진왕'  
계열사 방문, 직무체험 웹예능

유통가에도 '예능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예능 콘텐츠를 활용한 브랜드, 상품 홍보는 유통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도됐다. 예능 콘텐츠라는 정체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홍보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런 만큼 호응을 얻기도 어려워, 그간 많은 기업이 예능 콘텐츠를 시도하고도 실패를 경험했다. 그러나 최근 새롭게 숏폼 콘텐츠가 인기를 끌며 시청자 유입이 쉬워지자 다시금 예능 콘텐츠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1일 (메트로경제)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최근 유튜브 또는 자체 영상 채널을 통해 예능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



지난달 24일 현대홈쇼핑이 자체 유튜브 채널 '훅티비'를 통해 선보인 유튜브 예능 콘텐츠 '권혁수 앞광고 제작소'의 첫 에피소드. 방송인 권혁수가 광고회사를 차려 다양한 광고를 만든다는 컨셉으로, 실제 현대홈쇼핑 판매 상품과 연계해 자연스럽게 상품을 홍보한다. /현대홈쇼핑 훅티비 캡처 화면

유통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능 콘텐츠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하며 시청 행위 이상의 다양한 활동을 동반한 지 오래됐다.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에 발표된 주요 연구에 따르면, 특정 콘텐츠를 기반으로 축적한 호감도는 시청자로 하여금 추가 상품 소비와 자발적인 홍보 활동 등을 유도하고, 집단화하면 최종적으로 팬덤을 구축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데에 까지 이른다.

특히 예능 콘텐츠는 출연자의 정체성

이 날 것에 가까운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시청자가 더욱 입을 쉽게 한다. 실제로 GS25는 상품, 서비스 중심의 유튜브 콘텐츠를 예능형 콘텐츠로 전환한 후 업계에서 처음으로 100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대표 예능형 콘텐츠가 메가 히트를 기록하며 콘텐츠 별 평균 구독자 전환 비율은 10.3배, 연간 누적 조회 수 3.3배, 오가니 시청자는 3배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유통기업에서의 예능 콘텐츠 제

작은 위험부담이 크다. 제작비 등 수고가 큰데다, 공중파 방송은 물론 전문 제작사들과도 경쟁해야 한다.

한동안 예능 콘텐츠 제작에 소극적이던 유통기업들이 다시 예능 콘텐츠 제작에 출사표를 던진 데에는 '숏폼 콘텐츠'로 불리는 1분 미만 영상 콘텐츠의 인기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숏폼 콘텐츠는 짧은 길이인 만큼 소비가 쉬워 수십만 회에 달하는 조회 수도 상대적으로 쉽게 기록할 수 있다.

숏폼 콘텐츠를 통해 호기심을 유발하면 본편과 채널로의 시청자 유입도 어렵지 않을 뿐더러 선공개를 통해 본편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기도 좋다. 실제로 최근 예능 콘텐츠를 시작한 많은 기업들이 1분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SSG닷컴은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는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믿고 사는 즐거움' 홍보 캠페인을 15초 분량의 숏폼 콘텐츠를 중심으로 꾸렸다.

현대홈쇼핑도 지난달 24일 방송인 권혁수가 출연하는 예능프로그램 '앞광고 제작소' 첫 방송을 공개하고 콘텐츠를 연계한 상품 마케팅에 들어갔다. 본편 공개와 함께 3개의 쇼츠도 공개했다.

현대홈쇼핑 영업본부장 한광영 전무

는 "공식 유튜브 채널 시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품을 단순 홍보하는 방식보다 스토리텔링형 콘텐츠의 평균 클릭 수가 6배 높았다"며 "이번 유튜브 콘텐츠로 팬덤을 형성해 온라인몰과 라이브 커머스 구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모바일 중심 채널 전환기에 발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도 지난달 28일, 아이돌 그룹 비투비의 멤버 서은광이 출연하는 예능프로그램 '승진왕'을 공개했다. 롯데 계열사를 직접 방문해 다양한 직무를 체험하는 웹예능 콘텐츠다. 계열사 중에서는 롯데홈쇼핑이 자체적으로 2월 예능 콘텐츠 '내내 스튜디오'를 선보여 한 달 만에 230만 뷰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

GS리테일은 지난달 메타코미디와 JCP(조인트 콘텐츠 파트너십)를 체결하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나섰다. 메타코미디는 총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한 코미디 레이블이다. 양사는 특히 편의점을 배경으로 한 정통 스케치 코미디를 킬러 콘텐츠로 중점 전개할 계획이다. 콘텐츠는 1분에서 10분 내외로 제작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아동복 브랜드 60% ↓ '동대문 슈퍼패스' 진행

현대시리아울렛 동대문점  
두타몰 등 7개 업체 참여

현대시리아울렛 동대문점은 5월 한 달간 동대문 상권의 7개사와 함께 쇼핑·문화 대축제 '동대문 슈퍼 패스'를 진행한다.

현대시리아울렛 동대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동대문점을 비롯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두타몰·CGV 동대문점·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등 7개 업체가 참여한다.

4일까지 1층동원아스퀘어에서 아동 특가전을 열어 휠라키즈·아디다스키

즈·크룩스 등 아동복 브랜드의 의류와 신발 등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60%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어버이날 선물 수요를 겨냥한 여성·남성패션 브랜드의 대표 상품들도 한정 특가에 선보인다.

아울러 현대시리아울렛 동대문점을 비롯한 참여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브로슈어도 마련했다.

호텔 레스토랑 할인권, 영화관 할인·무료 주차권 등으로 구성된 브로슈어는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온라인을 통해 현장 할인 쿠폰복도 티몬에서 한정 판매한다. /김서현 기자



사진은 스타필드 하남에서 진행 중인 '제3회 스타필드 별론 페스티벌' 전경. /신세계프라퍼티

## 스타필드, 어린이 위한 '초대형 별론' 마련

인기 캐릭터 전시 등 콘텐츠 준비

스타필드는 1일 팬데믹 사태 후 첫 마스크 없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를 대거 확충했다.

올해는 아이들이 어린이날의 설레는 기분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도록 초대형 별론 페스티벌·인기 캐릭터 전시·특별 팝업스토어 등은 가족이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했다. 스타필드 하남·안성·고양과 스타필드 시티 명지는 SAMG엔터테인먼트의 인기 애니메이션 아이들의 아이돌

'캐치! 티니핑'과 함께 '제3회 스타필드 별론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4m에 달하는 '하쭈핑', '꾸래핑', '퐁당핑'과 하늘을 나는 7m의 '나나핑', '발레핑'까지 '캐치! 티니핑' 친구들이 모두 모인 '티니핑 월드'가 펼쳐져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어린이날과 주말에는 미디어타워에 등장한 대형 티니핑 캐릭터와 함께 주제곡을 신나게 부르는 싱어롱 이벤트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인공 캐릭터 '하쭈핑'과 함께 기념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 이벤트도 진행된다. /김서현 기자

## 한화갤러리아, 자회사 에프지코리아 설립

파이브가이즈 국내운영 본격화

한화갤러리아는 내달 론칭하는 파이브가이즈 국내 운영을 본격화하기 위해 자회사 (주)에프지코리아(FG Korea Inc.)를 설립한다고 1일 밝혔다.

파이브가이즈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햄버거 브랜드로 해외 사업 전개시 해당 국가에 운영 전문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화갤러리아는 (주)에프지코리아의 지분 100%를 보유한다.

(주)에프지코리아 주요 인력들은 국내 론칭을 앞두고 홍콩에서 6주간 점포 운영 교육을 받고 있다. 첫 대표이사는 기존 파이브가이즈 브랜드 준비 팀을 이

끌었던 오민우 팀장이 맡는다.

오민우 신임 대표이사는 서울대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여러 글로벌 외식 브랜드를 거쳐 2021년 한화에 입사했다. 오 대표이사는 지난달 홍콩 파이브가이즈 매장에서 교육 등을 마치고 최근 귀국했다.

한화갤러리아는 3월 인적 분할을 통해 독립경영 체제가 되면서 신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첫 신평안이 될 파이브가이즈는 올 6월 강남에 문을 연다. 1호점 '파이브가이즈 강남'은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35)에 들어선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육우자조금, 온라인몰서 등심 30% 할인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육우자조금)는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을 기념해 5월 1일부터 7일까지 5월 육우 할인전 '가정을 지키는 당신! 체력이 먼 저육우!'를 공식 온라인몰 '우리육우쇼핑몰'에서 진행한다.

이번 할인전에서 평소 우리육우쇼핑몰에서 가장 인기있는 부위인 등심, 갈

비살, 정육 국거리는 30%, 그 외 제품들은 10% 할인한다.

한편, 육우자조금은 5월 1일부터 2일까지 반포한강공원에서 진행되는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에 참가해 국내산 소고기 육우를 최대 30%까지 현장할인 판매하며 식식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 GS리테일 '통합멤버십' 가입자 1000만명 돌파

GS리테일은 3월 선보인 통합 멤버십 가입 고객이 두 달 만에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GS홈쇼핑과 합병한 GS리테일은 본격적인 고객 통합을 위해 올해 3월 편의점 GS25, 슈퍼 GS더프레스, 장보기몰 GS프레시몰에 적용되던 '더팝(THE POP)' 멤버십과 GS삼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샵라이브, 모바일 앱에 적용되던 '리얼(REAL)' 멤버십을 아우르는 통합 멤버십을 선보였다.

통합 멤버십의 가장 큰 특징은 편의점, 슈퍼, 홈쇼핑, 온라인몰 등 어디서나 본인이 보유한 가장 높은 회원 등급의 혜택을 다른 채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는 점이다. /김서현 기자

## CU, 11일까지 '슈퍼세일' 인기상품 1+1 등 행사

CU는 1일부터 11일까지 '슈퍼세일'을 진행한다.

'슈퍼세일'은 월 통합 행사와 별개로 매달 1일부터 11일까지 주요 카테고리에서 고객들의 수요가 높은 인기 상품들만 따로 모아 ▲1+1, 2+1 증정 ▲맥주 번들(4입, 6입) 할인 ▲한정 기간 특가 할인 총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된 행사다.

지난 달에는 행사가 없던 달 대비 판매량이 420%까지 판매량이 급증했다. 품목별로는 음료가 664.8%로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였고 과자 445.8%, 안주류 383.7%, 가공식품 376.1%, 비식품 183.2%, 맥주 111.1%를 나타냈다. /김서현 기자



# 당뇨병 치료제 국산화 성공... 대웅제약 '엔블로정' 출시

**SGLT-2 억제제 계열 중 최고 혈당강하·심혈관·신장 질환 등 이점 글로벌 진출로 최고 품목 육성 계획 심포지엄 개최 등으로 정보 제공**

대웅제약이 국내 제약사 중 처음으로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국산화에 성공하며 시장에 정식으로 선보인다.

대웅제약은 36호 국산 신약 엔블로정 0.3mg이 당뇨병용제로서 보험급여를 적용 받아 국내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약가는 611원으로 ▲단독요법 ▲메트포르민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제미글립틴 병용요법 등 총 3건의 적응증을 확보했다.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대웅제약 국산 1호 SGLT-2 억제제 신약 '엔블로정'.

는 혈당강하 효과뿐 아니라 심혈관, 신장 질환 이점부터 체중 감량, 혈압 강하 효과도 있어 글로벌에서 차세대 치료제로 평가 받고 있다.

기존 당뇨병 치료제들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인슐린 분해를 막았다면, SGLT-2 억제제는 소변으로 포도당을 배설하는 새로운 기전으로 다른 약제와 병용 시 효과적이다. 대규모 장기연구를 통해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나 사망률을 낮추는 심혈관 개선 효과를 입증했으며, 추가로 심부전 입원 감소, 신장 보호 효과까지 입증했다.

대웅제약은 차별화된 강점과 시장성을 토대로 자체 개발한 국산 당뇨병 치료제를 출시해 국내는 물론 적극적인 글로벌 진출을 통한 계열 내 최고 품목(Best-in-class)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대웅제약은 제품 출시와 함께 두 달 간 매주 진행되는 릴레이 심포지엄 개최는 물론 주요 내분비내과의 국제학술

대회, 학회 행사 참석 등 다각화된 채널을 통해 엔블로정의 우수한 효능과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엔블로정을 글로벌 시장에서도 빠르게 발매할 계획이다. 올해 초 현지 파트너사 M8(목사8)과 수출 계약을 통해 중남미 전체 당뇨 시장의 70%(약 2조원)를 차지하는 브라질과 멕시코에 진출했다. 계약 규모는 기술료 포함 1082억원 규모로 내년 하반기 현지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 이미 엔블로의 각 국가별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또 추가 기술수출 계약도 논의 중으로,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2025년까지 15개국, 2030년까지 50개국 진출을 통해 국산 최고 당뇨 신약(Best-in-class)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당뇨 적응증으로 인슐린 병용 3상시험이 다국가에서 진행 중이다. 메트포르민 복합제는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당뇨뿐 아니라 심장, 신장, 비만 등의 추가 적응증 확보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대웅제약 이창재 대표는 "엔블로정은 출시 전부터 국제 SCIE 학술지에 등재되며 효과와 안정성을 이미 국제적으로 입증 받으며 학계와 업계로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며 "국산 신약 명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대웅제약의 차별화된 검증 4단계 전략과 영업의 작동원리로 당뇨병 치료제 계열 내 최고 신약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환절기 MZ세대의 맛있는 영양 보충법

**계절성 질환에 비타민C 공급 중요 건강기능식품업계 '맛' 키워드 부상**

평소 건강 관리에서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MZ세대에 맞춘 비타민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큰 일교차와 이른 시기 등장한 꽃가루가 위세를 떨치며 계절성 질환에 노출된 위험이 커진 요즘, 비타민C의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봄에는 겨울보다 비타민C의 소모량이 3~5배나 늘어난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활성산소가 쌓여 피곤함과 나른함, 식욕부진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충이 필수적이다. 비타민C는 춘곤증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봄이면 냉이, 썩, 두릅 등 나물을 활용한 반찬을 자주 식탁에 올렸던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비타민C를 채우는 트렌드가 많이 달라졌다. 간식처럼 휴대하며



동아제약 비타민C 전문 브랜드 비타그란의 구미 젤리.

맛있게 섭취하는 제품의 등장부터다. 동아제약 비타민C 전문 브랜드 비타그란의 구미 젤리가 대표적이다.

MZ 세대는 건강 관리에서도 즐거움을 추구한다. 건강을 위해 좋다는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 업계 전반에 '맛'이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한 배경이다.

비타그란은 이 트렌드에 발맞춰 다각적인 제품 라인업을 제안해왔다. 구미 젤리 외 상큼한 레몬맛 분말타입의 비타그란 비타민C도 대표 상품으로 꼽을 수 있다. 간편한 영양 보충을 위한 대안도 있다. 비타민C1000과 비타민C1000 플러스는 1일 권장량 1000%의 비타민C를 간편하게 채울 수 있는 정제타입 제품이다. 비타그란 구미 젤리는 포도맛, 오렌지맛 등 상큼 달콤한 과일맛을 가졌다. 한 포에 담긴 구미 젤리 8개만으로 비타민C 1일 섭취권장량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비타그란 관계자는 "비타그란 비타민C 구미 젤리는 젤리 제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MZ 세대에게 맛있는 영양 보충법을 제안하고자 개발한 제품"이라며 "환절기나 여행 시 컨디션 관리를 위해 제품을 들고 다니며 섭취한다는 소비자 반응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 풀무원건강생활·일본법인 신임 대표 선임

풀무원은 계열사인 풀무원건강생활(주) 신임 대표에 오경림 씨, 풀무원의 일본법인인 (주)아사히코(Asahico) 신임 대표에 이케다 미오 씨를 각각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풀무원건강생활(주) 오경림 신임 대표는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 학사와 동대학 영양생화학 석사 출신으로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건강기능식품 마케팅 부서장, 에프앤디넷 마케팅 본부장(연구소장 겸임), 롯데칠성 E커머스 부문장을 역임했다.

풀무원 일본법인(주)아사히코의 이케다 미오 신임 대표는 도쿄농업대학 농



풀무원건강생활(주) 신임 오경림 대표 풀무원 일본법인 신임 이케다 미오 대표

학부 입학하고 출신으로 일본 및 유럽, 미국의 식품기업에서 마케팅, 영업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2018년 풀무원 일본법인에 합류, 일본법인의 PF(Plant Forward) 사업부장, 영업 마케팅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hy, 맞춤형 영양설계 'L-A-B' 시리즈 출시

100% 유기농 야채 자연유래 성분 함유

hy가 '하루야채 L-A-B'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여 균형있는 야채 섭취 습관을 제시한다.

'하루야채'는 2005년 '일일야채 권장량 350g'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냉장 과채주스 시장을 연 제품이다. 맛과 편리함에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 18년간 국내 대표 과채주스 브랜드로 자리매김 해왔다. 지난해 브랜드

전체 누계 판매량은 10억개에 달한다.

신제품 하루야채 L-A-B는 맞춤형 영양설계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100% 유기농 야채 자연유래 성분인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으로 경쟁력을 높였다. '하루야채 L'은 21종 유기농 야채와 라이코펜 1만2000µg, '하루야채 A'는 23종 유기농 야채와 안토시아닌 2만7000µg, '하루야채 B'는 21종 유기농 야채와 베타카로틴 2만1000µg을 함유했다.

/신원선 기자

## 비빔면 성수기 눈앞... 오뚜기 '진비빔면·진짜쫄면'으로 승부

비빔면 시장, 작년 1500억 대로 성장 중량 ↑·CM송 등 차별화 마케팅 선택

본격적인 여름 비빔면 성수기를 앞두고 라면시장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내 비빔면 시장 규모는 2015년 757억원에서 2020년 1400억원으로 약 2배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간편식 수요 증가에 힘입어 1500억원대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뚜기는 치열한 비빔면 시장을 겨냥해 걸그룹 마마무의 화사를 '진비빔면' 모델로 발탁하고 마케팅에 나선다.

1일 오뚜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출시한 '진비빔면'은 출시 3개월만에 3000만 봉지 이상 판매되며, 여름 비빔면 시장의 신홍강자로 부상했다. 기존 비빔면 한 개로는 양이 부족하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기존보다 중량을

20% 늘려 비빔면 시장의 '업그레이드' 붐을 이끌었다.

지난해에는 비빔면 맛을 좌우하는 '소스'를 업그레이드한 '진비빔면' 배사 매무초 리뉴얼을 선보였으며, 기존에 없던 원료인 배, 매실, 무 등을 추가했다. 이 같은 차별점으로 2023년 3월 현재 누적판매량 1억봉 이상을 기록하며 인기 비빔면 제품으로 자리잡았다.

오뚜기가 최근 공개한 광고에는 화사가 중독성 강한 배사매무초 노래를 배경삼아 '뻘뻘한 비빔면에 초 쯤 칠게!'라는 대사를 전달한다. 강렬한 빨간 가죽 의상을 입은 화사가 진비빔면 소스를 뿌리며 짓는 도발적인 표정이 돋보이며, 보통의 '시원매콤'을 넘어 '초시원매콤'을 외치며 리얼하고 맛깔스러운 면치기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키는 또 다른 제품도 있다.

오뚜기가 2018년 3월 출시한 '진짜쫄면'이 그 주인공이다. 진짜쫄면은 쫄깃하고 탄력 있는 쫄면 면발과 매콤함과 새콤달콤한 맛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쫄깃한 면발은 감자 전분과 고압의 스팀으로 증숙해 진짜 쫄면의 식감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쌀로 만든 대양초 고추장에 식초, 볶음참깨, 무초절임액을 첨가한 비빔 양념장과 귀여운 모양의 계란 후레이크, 건양배추 등 큼직한 건더기로 더욱 맛있는 진짜 쫄면을 맛볼 수 있다.

기존 비빔면의 양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위해 150g으로 늘렸으며, 양념장도 47g으로 넉넉히 포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오뚜기 '진짜쫄면'은 분식점 쫄면에 버금갈 정도로 풍부한 건더기와 쫄깃한 면발로 호평을 받았으며, 수많은 쫄면 마니아층에게 인정받으며 여름면 시장에 정착했다.

/신원선 기자

## 롯데칠성, '박서준 생맥맛집' 새 광고 시작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의 콘셉트

롯데칠성음료는 초신선 라거 '클라우드 생(生) 드래프트'의 모델로 배우 박서준을 발탁하고 '클라우드 생(生) 드래프트가 만드는 생맥맛집'이란 콘셉트의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피크닉'편과 '홈티'편으로 구성된 신규 광고 캠페인은 아외 피크닉, 우리집 옥상 등 일상의 다양한 공간이 '클라

우드 생 드래프트'를 통해 '생맥주 맛집', '세상 하나뿐인 생맥맛집'으로 재탄생됨을 알리고 동시에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가 곧 생맥주'라는 제품의 차별화된 강점을 강조한다.

이번 광고 캠페인에 합류한 배우 박서준은 지난 2020년 출시 당시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의 첫 모델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주류 업계 최초 랜선 팬미팅 등 적극 소통으로 초반 이슈몰이에 앞장섰다.

/신원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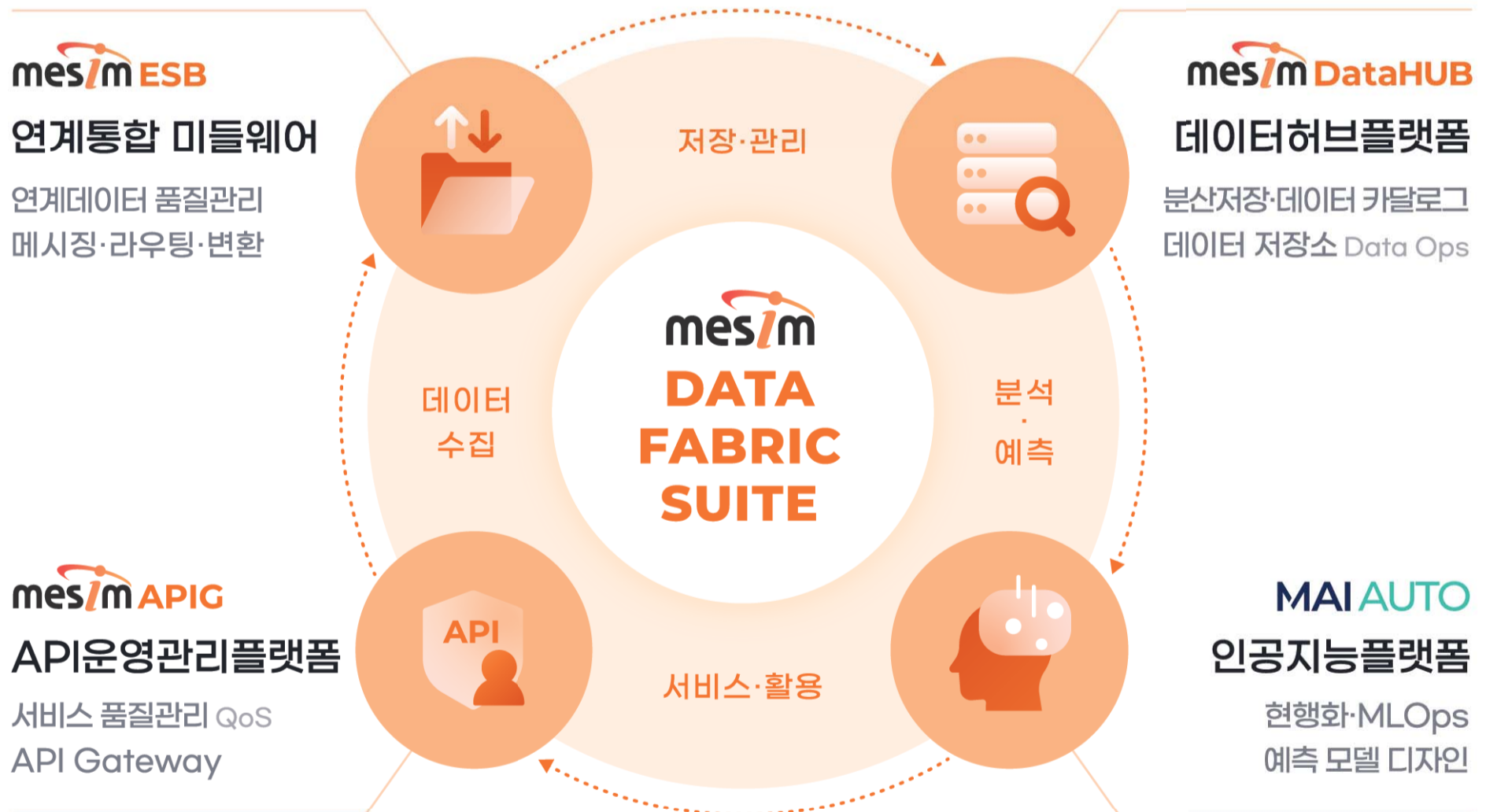


데이터 연계통합(ESB/IoT/망간) SW 3,000여 기관 공급  
최고 품질·성능·실적·기술



# DX 및 지속가능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Data end2end 기반 핵심기술

# DATA FABRIC SUITE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수급대상 예측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디지털트윈기반 교통상황시스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계기관 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통 빅데이터 분석 표출 시스템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등





현대차, 'TCR 월드 투어' 개막전 더블포디움 달성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최정상급 투어링카 대회 '2023 TCR 월드 투어' 개막전에서 우승, 준우승을 모두 차지했다. BRC 현대 N 스퀘드라 코르세팀 노버트 미첼리치 선수(왼쪽 두 번째)와 미켈 아즈코나 선수(왼쪽 첫 번째)가 4월 28~30일 열린 '2023 TCR 월드 투어' 포르투갈 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하고 포디움에 올라선 모습. /현대차



LG U+ "휴대폰 구매하고 가족여행 떠나세요"

LG유플러스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여행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이달 말까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시리즈 혹은 Z 플립4를 새롭게 구매한 고객에게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여행상품권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LG유플러스



IBK기업은행-신보, 혁신창업기업 금융지원 맞춘다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혁신창업기업 투자연계대출(IBK벤처투자매칭대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김인태 IBK기업은행 혁신금융그룹 부행장과 한영찬 신용보증기금 신용사업부 이사간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하나금융그룹 "탄소중립 실천 축구경기 시행"

하나금융그룹의 프로축구단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달 3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홈경기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탄소배출량 제로에 도전하는 '탄소중립 실천 축구 경기' 시행을 선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왼쪽)과 허정무 재단법인 하나금융축구단 이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



제주항공-열린사회, 말라본서 의료봉사활동

제주항공이 (사)열린사회와 함께 지난 4월26일부터 5일간 필리핀 말라본에서 22번째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에는 제주항공 임직원과 열린사회 소속 의료진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30명이 참여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와 약 처방, 기초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제주항공

# '약 다운 약' 만들기 위해 평생 헌신... 제약계 거인 영면

##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 별세

향년 90세... 항생제 합성분야 선도 친환경 수액백 등 '제약보국' 앞장

'약 다운 약'을 만드는데 평생을 헌신한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이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JW그룹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은 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 중 전날 병세가 급격히 악화했으며, 지난 4월 30일 오전 7시 49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영면에 들었다.

이 명예회장은 '생명존중'과 '도전정신'의 경영이념 아래, 대한민국 제약 산업의 발전과 보건의료 기반 향상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인물이다. 1945년 광복동이 기업으로 탄생한 JW중외제약에서 '제약구세'의 일념으로 필수약품부터 혁신신약까지 '약 다운 약'을 만들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약보국' 실현에 앞장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

섰다.

1966년 회사의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이종호 명예회장은 1969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합성 항생제 '리지노마이신' 개발에 성공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리지노마이신'은 1973년 12월 영국 약전(B.P)에도 수록돼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1969년 5월 19일 발명의 날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항생제 합성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룬 이 명예회장은 1974년, 당시 폐니실린 항생제 분야 최신 유도체로 평가받던 피바록실린의 합성에도 성공, '피바록신'을 개발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어 1970년대 초반에는 기초원료 합성과 생산을 위한 연구에 집중, 국내 최초 소화성궤양 치료제 '아루사루민', 진통·해열제 '맥시펜', 빈혈치료제 '웨이', 종합비타민 '원어데이' 등 신제품들을 시장에 선보이며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갔다.

회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수액 산업 분야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JW그룹은 1997년에 국내 최초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Non-PVC 수액백 개발에 성공, 친환경 수액백 시대를 열었으며, 2006년에는 1600억원을 투자해 충남 당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액제 공장을 신설, 글로벌 생산기지를 구축했다. 당시 이 명예회장은 스스로

를 '우리 시대의 마지막 바보'라고 했다.

JW그룹은 이 수액공장을 기반으로 2019년에는 자체 개발한 3체임버 종합영양수액 '위너프' 완제품을 아시아권 제약사로는 최초로 영양수액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 시장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유족으로 부인 홍임선씨와 아들 이경하 JW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동하씨, 이정하씨, 딸 이진하씨가 있다.

장례는 JW그룹 회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3일 오전 7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지는 경기도 연천군 중면 향산리다. 회사측은 평소 소탈하게 살아온 고인의 유지와 유족의 뜻에 따라 조의금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삼성전기, 차세대 소재·부품 개발 인재 웰컴데이

# 포항공대 교수·학생 40명 초청... MLCC 등 첨단기술 소개

(적층세라믹콘덴서)

부산사업장 제품·공정라인 견학 "학생들이 더 많은 관심 가지기를"

삼성전기가 포항공대와 인연을 이어갔다.

삼성전기는 4월 28일 부산 사업장에서 '차세대 소재·부품 개발 인재 웰컴데이'를 개최했다고 5월 1일 밝혔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11월 포항공대와 체결한 '소재·부품 인재 양성 MOU'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부산사업장 생산 주요 제품을 소개하고 관련 연구 분야와 연계해 향후 산학협력분야를 넓히려는 의도다.

삼성전기는 포항공대 교수진과 학생들 40여명에 MLCC와 반도체 패키지 기판 등 첨단 기술을 소개하고



삼성전기 부산사업장 초청행사에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핵심 공정 라인 견학도 제공했다.

포항공대 학생들은 가로 세로 30cm 정육면체에 1마이크로미터 이하 미세면지보다도 작은 이물까지 관리할 수 있는 클린룸을 보며 흥미를 보였다.

행사에 참석한 포항공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우정 학생은 "책을 보면서 생각했던 장면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라

며 "실제 제품을 보면서 삼성전기의 기술력에 감탄했고, 학교로 돌아가 연구를 무사히 마쳐 소재·부품 기술 강화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최시영 교수는 "학생들이 실제 제품이 개발되고 생산되는 현장을 볼 수 있어 좋은 수업이 된 것 같다"라며 "학계 및 기업이 요구하는 핵심인재 양성에 역량

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삼성전기 패키지지원팀장 안정훈 상무는 "치열하게 움직이는 개발 현장에서 항상 인재에 대한 갈증이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수한 학생들이 삼성전기와 소재·부품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삼성전기는 소재·부품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포항공대와 채용 연계형 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해 소재·부품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 및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기는 포항공대와 MLCC·반도체 패키지기판 관련 요소 기술 등 9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용기자 juk@

## 이창용, 한중일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한국은행 총재)

ADB 총회 참석 등 국제교류 확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제26차 아세안(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및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총재는 내달 2일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역내 경제 동향 및 금융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최근 금융·경제 상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차양마이 이니셔티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다자화(CMIM) 실효성 제고방안,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역량강화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 총재는 또 제56차 ADB 연차 총회에도 참석한다. 각종 공식 행사에 참여해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 각국 대표 및 국제금융계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아태지역과 글로벌 경제상황, 정책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회의기간 중에 열리는 거버너 세미나에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고 비즈니스 세션 의장직 수행도 담당한다.

/나누리 기자 yul115@

## 인사

- ◆ **풀무원** △풀무원건강생활 △대표 오경림 ○일본법인 아사히코 △이케다 미오
- ◆ **경북대** △대의협력처장 윤호성
- ◆ **조선일보** △사재팀장 강치욱
- ◆ **조선비즈** △편집국 에디터 김덕한
- ◆ **강원일보** △편집국 △편집부 국장대우 조남원
- ◆ **핀포인트뉴스** △ 편집국장 정재웅
- ◆ **포인트데일리** △ 대표이사 권진안

## 부음

- ▲ **최미자씨** 별세, 노진석씨(사업) 배우자상, 예지·중현씨(LG에너지솔루션사원) 모친상, 김영준씨(전자신문 기자) 장모상, 김수정씨 시모상=1일,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3일 오전 5시, 장지 대전추모공원. ☎ 02-

2002-8444

- ▲ **정진기씨** 별세, 양원희씨 배우자상, 정운재(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혁준씨(아기타극제교양대 교수) 부친상, 김기한씨(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장인상=4월 30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3일 오전 10시, 장지 광릉추모공원. ☎ 02-2072-2022

- ▲ **세순이씨** 별세, 윤병호씨(전 동원산업 이사) 배우자상, 창원(서울디지털대 교수)·영애씨 모친상, 전재은씨 시모상=1일,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3일 오전 10시, 장지 인천가족공원 시립봉안당. ☎ 032-460-9408

- ▲ **곽영식씨** 별세, 준원씨(삼표그룹 대외협력본부 홍보팀장) 부친상=4월 30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3일 오전 5시 30분,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 02-2227-7500



엔지니어 마스터 II 다이버 크로노미터  
 더 많은 보호 기술을 통합하여 강력한  
 다이버 워치 궁극의 강인함과 극한의  
 정밀도를 느껴보세요.



www.ballwatch.kr  
 불워치 부티크 청담 1544-7593

**BALL**  
 OFFICIAL  STANDARD  
 Since 1891



# 납품대금 연동제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2023년 10월 4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수·위탁 거래부터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주기적으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제 해당 거래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수·위탁 거래'여야 한다. '수·위탁 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및 부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제2조 제4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는 물론이고 중소기업간의 거래도 포함된다. 여기서 주의를 요한다. 또한 하도급법상의 하도급거래와 달리 위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보다 매출액

이 더 많을 필요도 없다. 하도급거래와 달리 업에 따른 위탁이 아니어도 가능하므로, 용역업자가 제조위탁을 할 경우 하도급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탁·위탁 거래에는 해당한다.

다음으로 납품대금 연동대상인 '주요 원재료'인지 따져봐야 한다.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는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인 경우 ▲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제21조 제3항). 다만 이러한 예외규정을 악용해 계약기간이나 금액을 쪼개거나 수탁기업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제21조 제4항, 제43조 제2항).

이러한 검토 단계를 거쳐 연동제 대상임이 확정되면 위탁기업은 '연동 약정서'

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연동제의 핵심이다(제21조 제1항). 위 약정서에는 연동대상인 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제21조 제2항, 제27조, 제28조의2). 이러한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기업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제27조, 제28조의2, 제43조 제3항).

추후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은 위 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조정일마다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 후, 조정요건 충족 시 연동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고 이를 '납품단가변동표'에 기재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제27조, 제28조의2).

/법무법인 바른

※여지윤 변호사의 정기 칼럼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이 5월2일자부터 [여지윤의 부동산 세상]으로 타이틀을 바꿔 연재합니다.

# 증시변동성 키우는 SG發 사태



기지수첩 원관희 (자본시장부)

2차전지 관련주 과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까지 겹치면서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SG증권발 사태가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어 하루빨리 이번 사태를 종식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 우려와 겹쳐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SG증권발 사태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특히 유명연예인과 기업 인사들이 주가조작 세력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현재 여러 세력이 가담한 주가 조작 세

력이 차액결제거래(CFD)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일어나 벌어진 것이라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상승세를 보였던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다우데이터,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등 8개 종목이 이번 SG증권발 사태에 관련됐다. 이들 종목은 24일 SG사태가 터지자 하한가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가스와 대성홀딩스, 선광은 4일 연속 하한가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그동안 물밑에서 떠돌던 이들 종목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주가조작 세력은 아주 긴 시간 동안 광범위하게 이들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린 새로운 주가조작 형태를 보여줬다. 이들 세력들은 지난 2020년부터 다단계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 명의로 후대전화를 개통하고 주식계좌를 만들어 해당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거래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공매도 세력 연구 가능성, 대주주의 사전 인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한편 주가조작에 관련된 해당 인사들에 대해 출국 금지를 내렸다.

수사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는 모르지만 1차적으로 금융위원회의 능동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 일부 종목에 작전 세력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신속하게 대응했다면 이들 세력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뒤늦게 들어온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시장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wkh@metroseoul.co.kr

## 오늘의 운세 5월 2일 (금 3월 13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아랫사람이 길을 터주니 일이 수월. 48년생 산돌바람이 불어오니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60년생 적당한 경쟁력이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72년생 시장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격. 84년생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쓸쓸하다.
- 소** 37년생 자손이 송진되니 경사가 겹겹. 49년생 모심으러 갈 때는 장화를 신어라. 61년생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래다 보면 길도 보인다. 73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85년생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니 회사가 번창함.
- 호랑이** 38년생 얼룩진 옷은 바라보지 말고 세탁. 50년생 비단옷을 입고 걸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 62년생 동료와 의견이 맞지 않아도 한발 양보해보자. 74년생 무엇을 해도 기본 좋은 날. 86년생 사방을 둘러봐도 의자할 곳이 없다.
- 토끼** 39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51년생 달빛이 밤하늘을 빛나게 하니 활기차다. 63년생 성공을 원한다면 오늘을 알차게. 75년생 자주 만나야 마음을 알 수 있다. 87년생 좋은 얼굴로 남을 대하니 더욱 발전이다.
- 말** 40년생 농친 고기가 커 보인다. 52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64년생 진퇴양난의 경우라도 조심하면 길이 열린다. 76년생 상사의 조언이 문제의 열쇠가 되니 경청해야. 88년생 노력이 이성문제로 사상누각에 처한다.
- 뱀** 41년생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마라. 53년생 주변이 어수선하니 언행과 측근 조심. 65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실망은 금물. 77년생 신경질 내면 본전 찾기 힘들다. 89년생 소나무처럼 항상 푸른 내 마음이다.
- 닭** 42년생 지는 앞을 보면 나를 보는 듯. 54년생 유혹이 많으니 마음을 굳건히. 66년생 해도 해도 버리는 연인은 인생을 같이 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78년생 행복은 언제나 주변에 있다. 90년생 세상에는 비밀이 없으니 말조심을.
- 개** 43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 돈에 겸손해야. 55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다. 67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79년생 골치 아픈 일은 부모님과 상의. 91년생 무슨 일든 결국은 올바른 이치대로 움직인다.
- 원숭이** 44년생 죽은 비가 오면 더 푸르러 지니 참고 견뎌라. 56년생 바쁜 하루 보람은 있다. 68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라. 80년생 내키지 않는다고 핑계고 자멸 것인가. 92년생 무슨 일이나 시기를 놓치면 후회하는데.
- 닭** 45년생 소금 장사 지나가는데 비가 오는 격이니 매사에 조심. 57년생 공과 사를 다시 살펴보자. 69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이지도 무난. 81년생 매파를 보냈으나 소식이 없어 난감하다. 93년생 산길이 아름답고 물이 깨끗하다.
- 돼지** 46년생 외로움보다 힘든 것은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58년생 어려운 일이 동료 선배의 도움으로 해결. 70년생 마음이 상해도 상사의 뜻을 존중해라. 82년생 병원에서 소지품 주의. 94년생 열음과 숲의 차이를 꼭 먼저보고 알겠는가.
- 돼지** 47년생 쾌청한 날이니 새로운 일에 도전. 59년생 흰색이 행운을 주니 스카프라도 해 보길. 71년생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승패를 좌지우지. 83년생 스승님을 찾아뵙자. 95년생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고 집안의 계획은 화목에 있다고 했다.



## 김상회의四季 소나무 수난시대

소나무는 대한민국에서는 각별히 사랑받는 침엽수이다. 소나무에서 나는 송진은 독특한 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약재이기도 하여 오랜 세월 소중한 자산이기도 했다. 목재로도 상품이라 조선시대 때는 소나무벌채를 금지하는 송금(松禁)정책까지 시행되었으니 우리국민의 소나무사랑이다. 무엇보다 추석 때 으뜸 전통 음식인 송편은 말 그대로 솔잎을 깔아 코끝에 맴도는 솔향과 함께 반달모양 송편을 먹는다는 것은 넉넉한 한가위의 품격까지 높인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에 걸쳐 유럽과 북미 등 북반구 전반에 자생하는 대표적 침엽수지만 우리나라만큼 소나무에 대한 애정이 특별한 것 같지는 않다. 우리나라 수종 중 가장 넓은 분포면적을 가지며 개체수도 가장 많다고 하는데 특히 화강암지대에서도 잘 자라니 우리나라와도 궁합이 맞는 나무라 아니할 수 없다. 노목은 노송(老松)이라 불리며 장엄하고 눈서리를 이겨내는 사시사철 푸른 기상은 곧은 절개로 대쪽 같은 선비들의 표상 그 자체이다. 잎 끝이 뾰족하여 굽히지 않는 의지의 상징으로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그 소나무에 대해 무용론(?)을 얘기하고 있다. 최근 잦은 산불로 인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확산의 주범이 소나무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주종이 소나무인데 전체 삼림의 36%라는 것이다. 나무들 가운데 불이 붙기 쉬운 송진을 분비하며 게다가 소나무는 뾰뾰하게 불어서 자라기까지 하여 불이 나면 좋은 산불연료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민들의 전통적인 소나무 사랑을 의식해서인지 다 뽑자는 것이 아니라 숲을 살리기 위해서 뾰뾰한 소나무는 쏘아 내고 웃자란 소나무를 베어내자는 얘기도 곁들였다. 교육지책이라 할지라도 씩씩한 마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신작출판 문제출제: 손호성

4X3 스토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등호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6 | 10,000원

	8	5	1	2				
				9				3
								1
6	5		2	4				8
7			6	8		3	5	
4								
5			9					
			3	5	8	9		

			5			2	1	
3				6	1			
5				3				
	5		2	4				1
	2	6				4	9	
9			6	8			2	
					4			2
				9	2			4
	4	5			6			

**정답**

7	6	8	9	2	8	2	9	1
2	1	2	9	7	6	8	8	9
9	9	8	1	2	8	2	6	7
9	8	7	8	1	9	6	2	2
6	9	2	8	9	2	7	1	8
8	2	1	7	6	2	8	9	9
1	2	6	2	8	9	9	7	8
8	8	9	6	9	7	1	2	2
2	7	9	2	8	1	9	8	6

6	2	1	9	8	8	9	7	2
7	9	8	9	2	6	8	1	2
2	9	8	2	7	1	6	8	9
2	2	9	8	1	9	7	8	6
8	6	7	8	9	2	9	2	1
1	8	9	7	6	2	2	9	8
9	7	2	2	8	8	1	6	9
9	8	6	1	9	7	2	2	8
8	1	2	6	2	9	8	9	7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18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8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산후조리비 확대·건축규제 완화... 서울시민, 목소리 높인다

시정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 저출생문제 극복 민원 572명 지지 유기동물 안락사 방지 등 요청



서여의도에 있는 여의도공원 모습.

/김현정 기자

서울시민들이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 서여의도 고도 규제 완화, 유기동물 안락사 방지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1일 서울시의 온라인 시정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 시행일을 정책 발표일로 조정해 대상자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지난달 11일부터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시민 572명의 지지를 받아 이달의 최대공감 제안으로 뽑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출산 후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산후조리경비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모 씨는 "6월 말 출산 예정이어서 단 며칠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해 많이 아쉽다"면서 "시행일(9월1일)이 아닌 정책 발표일(4월11일) 이후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주면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저처럼 아쉬운 사람이 없을 것 같다"며 정책 수혜 대상을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족다문화담당관은 "산후조리경비 사업이 일부 자치구에서만 추진돼 산모 거주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

라 아쉬운 점이 있어 이를 시 전역으로 확대, 모든 출산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사회보장협의체, 예산 확보 등의 사전 절차로 인해 부득이 9월1일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서여의도의 고도 규제를 완화해 여의도 동북아 금융허브로 조성하지는 제안은 지난달 10일부터 현재까지 시민 63명의 공감을 얻었다.

신모 씨는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은 여의도를 국제금융허브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 정책적 규제"라면서 "국회가 있어 낮은 건물들만 준비한 서여의도는 세계적 금융사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1차적 관문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서여의도의 높이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서여의도에 해당하는 여의도공원 서측 일대는 주요 시설물인 국회의사당의 시설 및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로 지정, 높이를 제한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시 도시계획과는 "고도지구 높이 제한 완화는 서울시 전반의 도시계획 관리 정책과 연계되는 사안으로 신중히 따져봐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에서 지역 여건 변화와 실태 분석을 통해 높이 제한 조정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기동물들이 보호소에서 안락사하지 않게 도와달라는 청원 글은 올 4월 10일부터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시민

57명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홍모 씨는 "서울에서 구조된 유기견·유기묘와 길고양이는 보호소에 들어가게 되고 일정 공고 기간을 거쳐 입양되지 않으면 대부분 안락사당한다"며 "서울시에서 먼저 동물 복지에 모범이 돼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 보호 입양 시설을 만들어 운영해달라"고 호소했다.

시 동물보호과는 "서울시는 입양률을 높여 안락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양 대기 기간 10일을 추가로 부여해 최대한 입양을 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계속해서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어 주인 반환이나 새 주인에게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기동물이 생을 다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유기동물 보호 비용과 지속적으로 동물이 입소하는 동물보호센터 수용 시설의 한계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임을 널리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시, 36만 '약자가족' 지원 강화 나서

한부모, 미혼모·부, 청소년 부모 대상자, 중위소득 150%로 확대

서울시는 한부모가정, 미혼모·부, 청소년 부모 등 36만 약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올 하반기부터 29만 한부모가족의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한다.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가사 관리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월 3회 청소, 세탁, 설거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자녀 교통비·교육비'는 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로 대상자를 넓힌다. 교통비는 분기별로 8만6400원

을 보조하고, 교육비는 고등학생 자녀에게 살비로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달부터 매월 111명에게 7만원 상당의 '푸드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약 4300명의 미혼모·부와 자녀를 위한 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부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와 양육용품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기르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선보인다.

관내 약 541가구로 추산되는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지원망도 촘촘히 구축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에서 150% 이하까지로 늘리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 사업을 시작한다.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을 하는 청소년 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신규로 지원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월 10만원의 교통비도 지급한다.

올 하반기부터 '다문화 엄마학교'를 운영해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자녀 학습지도 방법을 교육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는 '한국어·모국어 언어교실'과 '이중언어 부모코칭'을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hjk1@

## 파주시, 교량 안전사고 예방 긴급점검

교량 107개소, 자체 전수점검 실시

파주시는 최근 성남시 분당에서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량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교량 107개소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공무원, 외부 전문가, 안전진단업체, 유지관리업체 등 민관합동으로 C등급 교량 22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상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점검을 통해 ▲교면포장상태, 바닥판, 거더 등 누수·균열 발생여부 ▲교대·교각 등 기초 구조물 균열·파손 여부 ▲정자교와 유사한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이상징후 확인 ▲관매달기로 인한 구조물의 손상 여부 등 시설물의 안전

성과 파손 여부를 살폈다.

점검 결과 안전상 문제는 없지만 교량 노후화에 따라 주요부재에 일부 손상 등이 있어 마장교, 공릉천교, 비룡교, 가야교 등 4개소에 대해서는 내하력 시험을 포함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남 정자교 붕괴사고를 교훈 삼아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점검에서 확인된 결함 및 이상 징후에 대해 적기에 보수·보강을 실시해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반기에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를 조속히 완료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41 | 해질 / 19:19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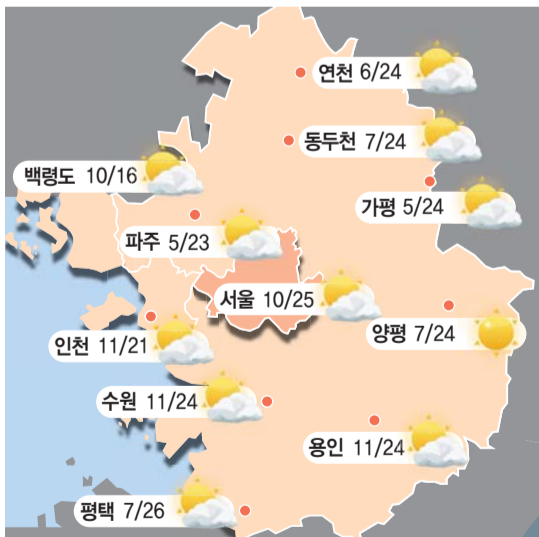
2일 (화)

음력 : 3월 13일

수도권 날씨

10~2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교내 '학폭 갈등' 관계조정으로 해소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발생 초기 단계에서 학교 내 관계조정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SG 봄!봄!봄! 관계이음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SG 봄!봄!봄! 관계이음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에 학교 내 관계조정 전문가가 비대면 활동 중심으로 학생 간 갈등을 직접 조정해 관계를 개선하는 활동이다. /신하은 기자

## 통인·신중앙 전통시장 디자인 탈바꿈

역사성·특수성 살리고 예술 접목

서울시는 중구 신중앙시장과 종로구 통인시장을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는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을 보수해 위생과 기능을 현대화하는 기존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통시장의 지역성·역사성·특수성을 살린 독창적 외관에 예술적인 실내 디자인을 접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

진된다"고 설명했다. 특정 시설물 설치, 일부 공간의 개보수를 넘어 시장 내 공용시설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개선해 시장의 정체성을 살리는 게 이 사업의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신중앙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과 연계해 2030 세대가 좋아하는 핫플레이스로 만들고, 외국인이 즐겨 찾는 통인시장에는 경복궁·서촌 등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입혀 관광 명소화한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中에 "필리핀 공격엔 우리가 방어" 경고 /사진 뉴시스  
▲호주 연 순이민 40만명 역대 최대 전망... 주택난 우려 심화

▲우크라 봄철 대만격 '코앞'... 장갑차·전차 1800대 출격한다  
▲튀르키예 "IS 수괴 알후세인 사살"... 존폐 위기 맞은 IS



▲기시다 일본총리 한국방문, 7~8일로 확정적  
▲영철3세 대관식에 혈세만 '1700억 원'... 어머니 때의 2배 /사진 뉴시스





마케팅 재밌어야 산다  
유통가  
예능 콘텐츠 붐물  
너



Life

대웅제약  
당뇨병 치료제  
국산화 성공  
L2



# 마음 보듬고, 성장 돕고... 미래세대 지키는 '키다리아저씨'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현대해상

'어린이날'을 제정한 독립운동가 소파(小波)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다'를 항상 강조했다. 방정환 선생의 이념은 우리 사회가 어린이와 청년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만 하는 동기 부여의 초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방 선생은 "나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고 말한 바 있다.

현대해상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한다. '마음이·합니다'라는 슬로건에 맞춰 사회·환경·지배구조(ESG)경영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회의 혁신과 변화 유도 ▲지역사회 나눔 실천 등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 초등학생 환경인식 교육

현대해상은 지난해 초등학생의 환경인식 개선을 위해 '하이에코스쿨'을 진행했다. 서울시 내 8곳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4주간 환경 교육을 했다. 우선 환경문제에 관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다.

하이에코스쿨은 사회적 기업 '에코플레이'와 함께 기획했다. 지난해 신규 개발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정규수업과 정인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을 활용했다. 친환경 비누 만들기, 폐 가죽 업사이클링 등 체험활동을 통해 흥미를 높이고 플로깅, 나눔 장터 등을 진행하면서 환경보호 활동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등에 어린이 환자를 위한 공간도 마련했다. 바로 체험형 놀이공간인 '힐링정글'이다.

'힐링정글'은 양방향(Interactive) 콘텐츠 기술과 프로젝터 및 모션 센서 등을 통해 가상의 정글 세계를 구현했다. 어린이 환자들이 디지털 콘텐츠에 담긴 동물들과 소통하



① 지난해 9월 현대해상이 '하이에코스쿨'을 진행했다.



② 상원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백엽서' 부스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해상

### 초등생 환경문제 공감능력 향상 교육 어린이 환자 위한 체험 놀이공간 조성

### 청소년 고민·고충 털어놓는 공간 마련 교내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운영

### 돌봄지원으로 장애가정 심리 안정 도와 청소년 성장 돕는 프로젝트형 교육도

고 교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 체험형 놀이공간이다. 병원을 즐거운 공간으로 변화시켜 어린이 환자들의 신체활동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했다.

특히 운동량이 적은 아이들이 즐겁게 몸을 풀 수 있는 '동작놀이' 인지를 향상시키는 '인지놀이'와 '정서케어' 등 총 3개 항목, 11가지 게임으로 구성했다.

### ◆ 학교 폭력 '멈춰!'... '아주 사소한 고백'

현대해상은 교육부, 푸른나무재단과 손잡고 지난 20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소년을 위한 '대나무 숲'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민과 고충을 털어놓을 공간을 마련한다.

'아주 사소한 고백'은 익명으로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고백엽서'와 교내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아사고 동아리', 푸른나무재단 소속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이론교육과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아사고 교실'로 구성했다.

특히 '고백엽서'가 청소년들에게 러브콜을 받고 있다. 학생들이 매년 1만 장에 달하는 엽서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엽서를 만들어 접근 문턱을 낮춘 것 또한 흥행 비결이다.

현대해상은 정서 지원 범위를 폭넓게 잡았다. 장애아동은 물론 가족의 정서적 휴식을 위해 '마음쉼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음쉼표'는 장기간 재활치료로 몸과 마음이 지친 장애아동을 비롯해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돌봄 지원을 골자로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을 전공한 전문 교사가 어린이 재활병원을 방문한다.

보호자 대신 장애아동을 돌보고 치료 일정을 관리해 주는 '1:1 돌봄지원'과 음악, 미술 도구 등을 활용해 언어 및 신체 감각 발달에 도움을 주는 '놀이교실'을 진행한다.

### ◆ '하이챌린지 스쿨' 통해 성장 도와

학업에 치중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법도 가르친다.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를 찾아서 도전하는 '하이챌린지스쿨'이다. 프로젝트형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하이챌린지스쿨'은 '나와 타인, 세상에 공감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마음 키우기'를 통해 첫발을 뗀다. 이후 독거노인, 소방관, 어린이, 경찰 등 마음을 나누고 싶은 주변인을 대상으로 문제의식을 키운다. 현대해상은 이런 과정을 통해 잠재력과 자신감을 키우고, 소통의 과정에서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글쓰기 교실인 '청년, 세상을 담다(청세담)'도 후원하고 있다. 청세담은 공익 분야에 특화된 '소셜 에디터'를 양성한다.

수강생들은 비영리·공익 분야 전문가의 강의와 현업 기자들의 멘토링을 통해 공익 분야 전문 저널리스트로 성장한다.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문제를 조명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2014년을 시작으로 34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 가운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언론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관련 분야에 취업해 활동하고 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BS1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영화순위 1위, '드림'은 톱밀 추격  
▲ 야구장 만원관중... 부산·잠실 경기 줄이 매진 /사진 뉴시스

▲ 해인사·불국사·월정사 등 65개 사찰 4일부터 무료입장  
▲ 롯데 13년 만의 8연승, 단독 선두는 11년 만



▲ 손흥민,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 '대기록' /사진 뉴시스  
▲ 르세라핌, 정규앨범 'UNFORGIVEN'으로 오늘 컴백